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품사편

이해·적용 80문항 · 선택형 40문항 / 서답형 40문항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책의 약속

- 학교 문법의 아홉 품사 체계를 따른다. 품사는 단어의 분류이며 어미를 별도의 품사로 세지 않는다.
- 품사·활용형·문장 성분·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역할은 서로 다른 분류로 기록한다.
- '-'는 어간이나 어미의 경계를 나타낸다. '읽- + -고'의 '+'는 결합을 뜻하며 실제 띄어쓰기가 아니다.
- '-아/-어'를 기본 어미로 제시하여 활용 전후를 비교한다. 이 책은 '르' 불규칙을 어간이 바뀌는 유형으로 다룬다.
- 본용언·보조 용언은 원칙적인 띄어쓰기로 제시한다. 대괄호 발음 표기가 아니라, 철자로 적은 활용형을 다룬다.

한눈 지도

묶음	개념	문항
A1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질문	001~005
A2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006~010
A3	대상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011~015
A4	수량을 나타내는 말의 두 자리	016~020
B1	조사가 더하는 관계와 뜻	021~025
B2	같은 조사도 문장 속에서 확인하기	026~030
B3	동작·작용과 성질·상태	031~035
B4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역할	036~040
C1	어간과 어미가 만드는 활용	041~045
C2	모습이 달라져도 규칙 활용	046~050
C3	특정 어간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051~055
C4	어미도 달라지는 불규칙	056~060
D1	관형사와 관형사형은 다르다	061~065
D2	꾸미는 범위와 독립적인 말	066~070
D3	같은 모양, 다른 문맥	071~075
D4	분류 기록을 연결하는 종합	076~080

S1 체언과 품사 분류

A1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질문

개념ID: 문법04-01 · 문법04-02

Q 품사는 무엇을 나눈 것일까?

A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의미'는 그 단어 하나의 자세한 뜻이 아니라, 이름·동작·상태처럼 여러 단어가 공유하는 뜻의 성질을 말한다.

기준	확인할 질문	예
형태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가?	'읽다·읽고·읽으면'
기능	문장에서 주로 어떤 구실을 하는가?	'새 책'의 '새'는 뒤의 체언 '책'을 꾸민다.
의미	이름, 동작, 상태 등 무엇을 나타내는가?	'책'은 이름, '읽다'는 동작

활용은 '읽다·읽고·읽으니'처럼 용언의 끝부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 예에서 바뀌지 않는 앞부분 '읽-'은 어간, 바뀌는 뒷부분 '-다··고··으니'는 어미이다. 자세한 내용은 C1에서 다룬다.

Q 우리말의 품사는 몇 가지일까?

A **학교 문법에서는 아홉 가지로 나눈다.**

형태	기능	품사(의미)	예
불변어	체언	명사·대명사·수사	'책'·'나'·'둘'
	수식언	관형사·부사	'새'('새 책')·'매우'
	독립언	감탄사	'아'
불변어('이다'만 가변어)	관계언	조사	'이/가'·'도'·'이다'
가변어	용언	동사·형용사	'읽다'·'높다'

체언·용언 등은 묶음 이름이지 열 번째 품사가 아니다.

Q 글자가 달라지면 모두 가변어일까?

A **아니다. 가변어의 '변화'는 활용을 뜻한다.** 동사·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이다. 그 밖의 품사와 '이다'를 제외한 조사는 불변어이다. '책/책이'에서는 명사 '책'이 활용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가 붙었다. '은/는'처럼 앞말의 받침에 맞추어 조사 형태를 골라 쓰는 것도 활용이 아니다.

비유로 연결하기 **분류 질문이 다른 서랍**

옷을 '두꺼운가?', '어디에 입는가?', '어떤 종류인가?'로 나누면 분류가 달라진다. 단어도 한 가지 질문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품사의 기준은 옷의 색이나 느낌이 아니라 **형태·기능·의미라는 문법적 성질**이다.

헷갈리는 짝

단어가 활용함 ↔ 다른 단어인 조사가 붙음.

G-01 아홉 품사와 세 가지 분류 질문

형태·기능·의미를 함께 살핀다.

형태	기능	의미
활용하는가?	어떤 구실인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가변어: 동사·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 체언·용언 등은 아홉 품사를 크게 묶은 이름이다.

001 선택형

품사 분류의 기준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자료 ‘꽃’ / ‘피다’ / ‘아름답다’ / ‘새’(‘새 옷’의 ‘새’)

① ‘꽃’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지 살피는 것은 형태 기준이다.

② ‘피다→피고’에서 활용 여부를 살피는 것은 형태 기준이다.

③ ‘새’가 뒤의 명사를 꾸미는지 살피는 것은 의미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④ ‘아름답다’의 글자 수를 세는 것은 품사 분류의 기능 기준이다.

⑤ ‘꽃’의 발음이 한 음절인지는 품사 분류의 핵심 의미 기준이다.

답 ____

002 서답형

자료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고, 아래 판단을 고쳐 쓰자.

자료 ‘나’, ‘읽다’, ‘예쁘다’, ‘매우’, ‘이다’(서술격 조사)

판단 “‘책이’에서는 ‘책’ 뒤에 ‘이’가 붙었으므로 ‘책’은 가변어이다.”

항목	답
가변어	
불변어	
판단 고치기	

003 선택형

아홉 품사와 그 상위 갈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대명사·수사는 모두 체언이다.

② 체언은 명사와 별개의 품사이다.

③ 동사와 부사는 모두 용언이다.

④ 조사와 감탄사는 모두 수식언이다.

⑤ 관형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이다.

답 ____

004 서답형

각 관찰에 사용한 분류 기준을 형태·기능·의미 중에서 쓰자.

기호	관찰
㉠	‘달리다’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낸다.
㉡	‘매우’는 뒤의 ‘높다’를 꾸민다.
㉢	‘높다’는 ‘높고·높으니’로 활용한다.

기호	기준
㉠	
㉡	
㉢	

005 선택형

불변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대명사이므로 불변어이다.

② ‘새’는 관형사로 쓰일 때 활용하지 않는다.

③ ‘이다’는 조사 가운데 활용하는 예외이다.

④ ‘빨리’ 뒤에 ‘도’가 붙어도 ‘빨리’가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⑤ ‘은’과 ‘는’의 형태가 다르므로 보조사 ‘은/는’은 가변어이다.

답

A2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개념ID: 문법04-03

Q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명사일까?

A **아니다. 사람·사물·장소뿐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의 이름도 명사이다.** '가방·도서관'뿐 아니라 '기쁨·약속'도 명사이다.

분류 기준	갈래	뜻과 예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	보통 명사	같은 종류의 대상을 두루 가리킴: '강', '도시'
	고유 명사	특정 대상에 붙인 이름: '한강', '서울'
다른 말에 기대는지	자립 명사	앞의 꾸미는 말(관형어)이 꼭 필요하지 않음: '책', '서울'
	의존 명사	앞의 관형어가 필요함: '읽을 것', '할 수'

Q '고유 명사'와 '자립 명사' 중 하나만 골라야 할까?

A **아니다. 질문이 다르므로 함께 해당할 수 있다.** '서울'은 특정 도시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고유 명사이고, 앞의 관형어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 명사이다.

비유로 연결하기 **두 장의 분류 스티커**

한 책에 '과학 책'과 '대출 가능' 스티커를 함께 붙일 수 있다. 두 스티커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명사도 **대상의 범위**와 **의존성**을 따로 확인한다. 스티커 비유가 모든 명사를 네 칸에 같은 수로 나누라는 뜻은 아니다.

헷갈리는 짝

'의존'은 혼자 쓰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의존 명사도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읽을 것'의 '것'에 조사가 붙으면 '읽을 것이'가 된다.

G-02 명사의 두 분류 스티커

‘서울’에 서로 다른 기준의 분류 스티커 두 장을 붙인다.

대상의 범위

‘서울’은 특정 도시의 이름
→ 고유 명사

자립성

‘서울’은 앞의 관형어가 꼭 필요하지 않음
→ 자립 명사

‘서울’은 고유 명사이면서 자립 명사이다. 두 기준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니다.

006 서답형

굵게 표시한 명사를 주어진 기준으로 분류하자.

기호	문장	분류 기준
㉠	**서울**에 비가 온다.	보통/고유, 자립/의존
㉡	읽을 **것**을 골랐다.	자립/의존
㉢	큰 **기쁨**을 느꼈다.	보통/고유

기호	분류
㉠	
㉡	
㉢	

007 선택형

‘할 수 있다’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자 쓰기 어려우므로 조사이다.

② 뒤의 ‘있다’를 꾸미므로 부사이다.

③ ‘할’의 일부이므로 어미이다.

④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할’과 띄어 쓴다.

⑤ 추상적인 뜻을 가지므로 명사가 아니다.

답 ____

008 서답형

주어진 두 기준을 적용하여 빈칸을 채우자.

자료 ‘강’, ‘한강’

두 말은 모두 앞의 관형어 없이 “강이 보인다.”, “한강이 보인다.”처럼 쓸 수 있다.

낱말	대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	자립성에 따른 분류
‘강’		
‘한강’		

009 선택형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는 같은 종류의 대상을 두루 가리키는 보통 명사이다.

② ‘서울’은 고유 명사이면서 자립 명사이다.

③ ‘먹을 것’의 ‘것’은 의존 명사이다.

④ ‘것이’는 의존 명사 ‘것’에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이다.

⑤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명사가 될 수 없다.

답 ____

010 서답형

띄어쓰기를 고치고, ‘것’과 ‘이’의 품사를 쓰자(‘것’은 명사의 세부 갈래까지).

고칠 문장 내가 읽을것이 남았다.

항목	답
고친 문장	
‘것’의 품사와 세부 갈래	
‘이’의 품사	

A3 대상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개념ID: 문법04-04

Q ‘나’는 언제나 같은 사람일까?

A 아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말하는 상황이나 앞뒤 문맥에 따라 정해진다. ‘나·너’는 인칭 대명사, ‘이것·저것·여기’는 지시 대명사의 예이다.

큰 갈래	작은 갈래	예
인칭 대명사	1인칭(말하는 이)	‘나’·‘우리’
	2인칭(듣는 이)	‘너’·‘당신’
	3인칭(그 밖의 사람)	‘그’·‘이분’
	미지칭·부정칭·재귀 대명사(재귀칭)	‘누구’·‘아무/누구’·‘자기’
지시 대명사	사물	‘이것’·‘그것’·‘저것’
	장소	‘여기’·‘거기’·‘저기’

구별	뜻	문맥
미지칭	가리키는 대상은 있지만 누구인지 모름	문을 두드린 한 사람이 있다. “누구야?”
부정칭	특정한 한 대상을 정하지 않음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 “누구든 참여해.”
재귀칭	문장에 앞서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킴	형은 자기가 만든 의자를 자랑했다.

미지칭·부정칭·재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쓰임을 더 나누어 살핀 것이다.

비유로 연결하기 **말풍선을 따라 옮겨 가는 이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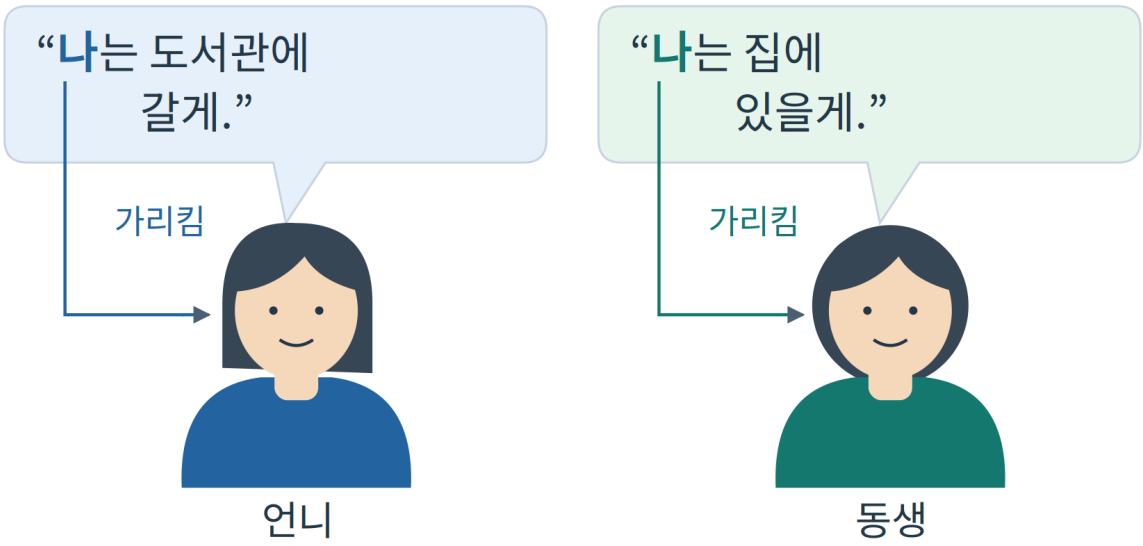
‘나’라는 이름표는 말풍선의 주인에게 붙는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 ‘나’의 대상도 바뀐다. 다만 대명사는 말하는 사람만 가리키지 않는다. ‘저것’처럼 물건을 가리키거나 ‘자기’처럼 앞의 대상을 다시 가리키기도 한다.

헷갈리는 짝

‘누구’라는 모양만 보지 말고, 모르는 특정인이 있는지 또는 특정인을 정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G-03 말풍선의 주인이 바뀌면 나도 달라진다

같은 '나'라도 말풍선의 주인에 따라 가리키는 사람이 달라진다.



'나'는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한다.

011 선택형

다음 대화에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언니: "나는 도서관에 갈게."
동생: "나는 집에 있을게."

① 두 '나'는 모두 언니를 가리킨다.
② 두 '나'는 모두 동생을 가리킨다.
③ '나'의 대상은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고정된다.
④ 첫째 '나'는 언니를, 둘째 '나'는 동생을 가리킨다.
⑤ '나'는 사람이 아닌 장소를 가리킨다.

답 ____

012 서답형

‘누구’의 쓰임을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구별하고, 근거를 쓰자.

기호	상황과 발화
㉠	문밖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얼굴을 모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니?”
㉡	참가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

기호	쓰임	근거
㉠		
㉡		

013 선택형

‘형은 자기가 접은 종이배를 물에 띄웠다.’의 ‘자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앞에 나온 ‘형’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②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직접 가리킨다.

③ 특정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칭이다.

④ 모르는 사물을 가리키는 의존 명사이다.

⑤ ‘접은’을 꾸미는 부사이다.

답 ____

014 서답형

대명사를 찾아 그대로 쓰고,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자.

㉠ 너는 어느 쪽을 고를래?
㉡ 이것을 상자에 넣자.
㉢ 여기는 매우 조용하다.

기호	대명사	갈래
㉠		
㉡		
㉢		

015 선택형

대명사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u>옳지 않은</u> 것은?

① '나'의 지시 대상을 알려면 누가 말하는지 확인한다.
② '자기'가 가리키는 앞의 대상을 확인한다.
③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한다.
④ '누구'의 쓰임을 가릴 때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살핀다.
⑤ '누구'는 모양이 같으므로 모든 문맥에서 미지칭으로만 쓰인다.

답 [ ]

A4 수량을 나타내는 말의 두 자리

개념ID: 문법04-05 · 문법04-12

Q 수를 나타내면 모두 수사일까?

A 아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체언이고, 수 관형사는 뒤의 체언을 꾸민다.

비교	문장	품사	확인할 점
둘 / 두	'사과 둘을 꺼냈다.'	'둘': 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으로 쓰임
	'사과 두 개를 꺼냈다.'	'두': 관형사	뒤의 체언 '개'를 꾸밈
셋 / 세	'셋이 함께 갔다.'	'셋': 수사	주어의 중심이 됨
	'세 사람이 함께 갔다.'	'세': 관형사	뒤의 명사 '사람'을 꾸밈

수사는 '하나·둘'처럼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첫째·둘째'처럼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예: '내 차례는 둘째이다'의 '둘째'). '제일·제이'도 순서를 나타내는 예이다. 이 책은 수사와 수 관형사의 비교에서 구별이 분명한 '둘/두, 셋/세'를 중심으로 다룬다.

Q 조사가 붙었다는 사실 하나면 수사일까?

A 아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인지 확인한 뒤, 조사 결합과 문장 안의 구실을 함께 살핀다.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이것도'에는 대명사 뒤에, '빨리도'에는 부사 뒤에 조사가 붙는다.

> **헷갈리는 짝**
> 수량이라는 뜻이 비슷함 ↔ 품사가 같음. 뜻이 비슷해도 '둘'과 '두'의 문법적 성질은 다르다.

판별 순서 — '둘/두·셋/세' 비교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둘·셋'처럼 뒤에 조사를 붙여 체언으로 쓸 수 있는가?	수사: '둘이·셋을'	② 확인
② '두·세'처럼 뒤의 체언을 꾸미고 조사는 붙지 않는가?	수 관형사: '두 개·세 사람'	문맥과 해당 단어의 쓰임을 더 확인

'다섯'처럼 모양이 같은 말은 '다섯이 왔다'(조사가 붙음 → 수사), '다섯 명이 왔다'(뒤의 체언을 꾸밈 → 수 관형사)로 가린다.

비유로 연결하기 **무대에 서는 사람과 소개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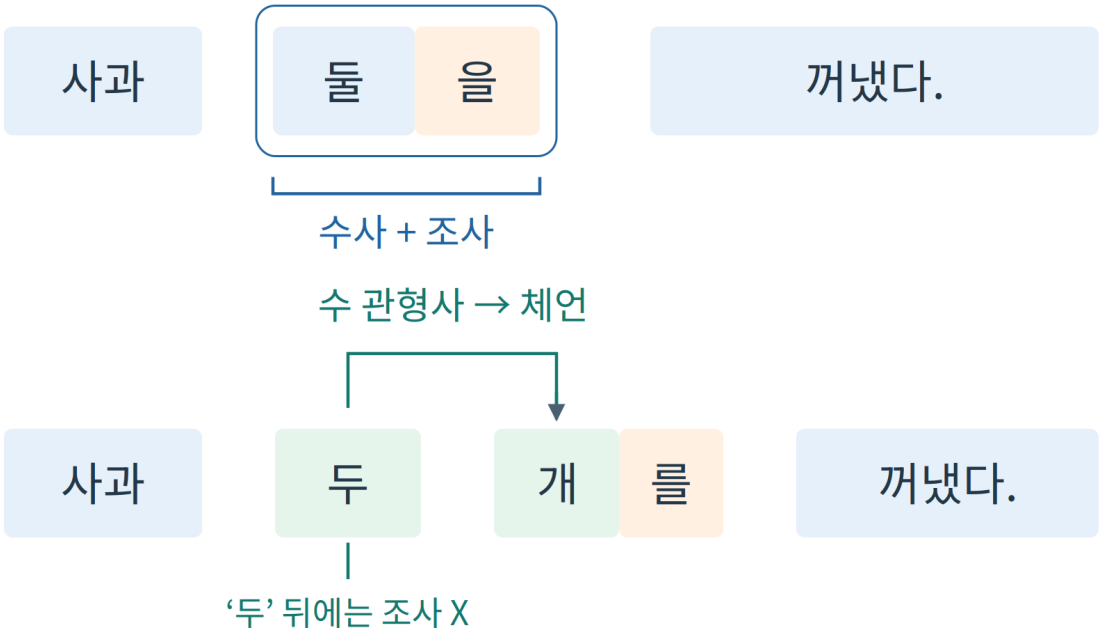
‘둘’은 조사를 달고 무대의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두’는 뒤 사람을 소개하며 앞에 서는 사람과 비슷하다. ‘둘이 왔다’에서는 ‘둘’이 체언으로 쓰이고, ‘두 사람이 왔다’에서는 ‘두’가 ‘사람’을 꾸민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수량의 뜻은 같지만 자리와 구실이 다르다는 점까지만 맞으며, 수사가 반드시 주어만 된다는 뜻은 아니다.

G-04 둘과 두가 놓이는 자리

수량의 뜻은 비슷하지만 문장 안의 자리와 구실은 다르다.



‘둘/두’, ‘셋/세’를 비교한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인지 확인한 뒤 조사 결합과 기능을 함께 살핀다.

016 서답형

굵은 말의 품사를 쓰고, 관형사인 말은 꾸미는 체언도 쓰자. 수사인 말의 마지막 칸에는 '해당 없음'을 쓰자.

기호	문장
㉠	연필 **둘**을 골랐다.
㉡	연필 **두** 자루를 골랐다.
㉢	**세** 사람이 앉았다.

기호	품사	그 말이 꾸미는 체언
㉠		
㉡		
㉢		

017 선택형

두 문장의 굵은 말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 **셋**이 상자를 옮겼다.
㉡ **세** 학생이 상자를 옮겼다.

① 둘 다 수를 나타내므로 수사이다.
② '셋'은 관형사이고 '세'는 수사이다.
③ '셋'은 수사이고 '세'는 관형사이다.
④ '세'는 '학생이'를 꾸미는 부사이다.
⑤ '셋' 뒤에 조사가 있으므로 '셋'은 명사이다.

답 ____

018 서답형

빈칸에 ‘둘’ 또는 ‘두’를 알맞게 넣고, 넣은 말의 품사를 쓰자.

기호	문장
㉠	책 ( ) 권을 빌렸다.
㉡	빈 의자는 ( )뿐이다.

기호	넣을 말	품사
㉠		
㉡		

019 선택형

자료에서 수사인 말만 골라 묶은 것은?

㉠ 둘이 걸었다. ㉡ 두 사람이 걸었다. ㉢ 셋을 골랐다. ㉣ 세 장을 골랐다.

대상 ㉠의 ‘둘’, ㉡의 ‘두’, ㉢의 ‘셋’, ㉣의 ‘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답

020 서답형

다음 판단을 고치고, 두 문장에서 근거를 하나씩 찾아 쓰자.

㉠ 둘을 남겼다.

㉡ 두 조각을 남겼다.

판단 "'둘'과 '두'는 모두 수량을 뜻하므로 같은 품사이다."

항목	답
고친 판단	
㉠의 근거	
㉡의 근거	

S2 조사와 용언

B1 조사가 더하는 관계와 뜻

개념ID: 문법04-06

Q 조사는 앞말에 무엇을 더할까?

A **문장 안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거나 말을 이어 준다.** 조사는 독립된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큰 갈래	주된 구실	예
격 조사	앞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냄. 주격·목적격·보격·서술격·관형격·부사격·호격 → B2	새가 난다 / 공을 던진다
보조사	특별한 뜻을 더함	나도 간다 / 나만 간다
접속 조사	둘 이상의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음	연필과 지우개를 샀다

비유로 연결하기 **역할표·덧붙인 메모·연결 고리**

격 조사는 앞말의 역할을 알리는 표, 보조사는 '역시·오직' 같은 뜻을 적은 메모, 접속 조사는 말을 이어 주는 고리에 비길 수 있다. 다만 조사는 실제 문법 단위이며, 아무 말에나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장식은 아니다. 보조사가 붙은 말도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Q 조사 앞에는 항상 명사만 올까?

A **아니다.** '나도'의 앞말은 대명사, '둘만'은 수사이다. 보조사는 '빨리도'처럼 부사 뒤, '먹고는'처럼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다.

헷갈리는 짝

'나만 왔다'에서 '만'은 보조사이다. '나만'이 주어라고 해서 '만'의 갈래를 주격 조사로 바꾸지 않는다.

G-05 조사의 세 가지 구실

격 조사는 역할표, 보조사는 덧붙인 메모, 접속 조사는 연결 고리와 비슷하다.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새가 난다.’ ‘가’: 주격 조사 문법적 관계	‘나도 간다.’ ‘도’: 포함의 뜻 나 역시 간다는 뜻	‘컵과 접시’ ‘과’: 같은 자격으로 이음 두 체언을 연결

‘나도’가 주어라고 해서 ‘도’를 주격 조사로 부르지 않는다. 조사의 갈래와 문장 성분은 다른 분류이다.

021 선택형

굵게 표시한 조사의 갈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동생**도** 왔다.
㉡ 사과**와** 배를 샀다.
㉢ 공**을** 잡았다.

① ㉠의 ‘도’는 주어에 붙었으므로 주격 조사이다.
② ㉡의 ‘와’는 사과만 목적어로 만드는 목적격 조사이다.
③ ㉠의 ‘도’는 특별한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④ ㉢의 ‘을’은 두 명사를 잇는 접속 조사이다.
⑤ 세 조사는 모두 같은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답 ____

022 서답형

조사가 더하는 뜻이나 관계를 보고 빈칸을 채우자.

기호	문장	살필 조사
㉠	나도 참가했다.	'도'
㉡	나만 참가했다.	'만'
㉢	물과 빵을 준비했다.	'과'

기호	조사의 갈래	더하는 뜻이나 관계
㉠		
㉡		
㉢		

023 선택형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u>옳지 않은</u> 것은?

① '너도'의 '도'는 대명사 뒤에 붙었다.

② '둘만'의 '만'은 수사 뒤에 붙었다.

③ '빨리도'의 '도'는 부사 뒤에 붙었다.

④ '먹고는'의 '는'은 연결 어미 '-고' 뒤에 붙은 보조사이다.

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명사뿐이다.

답 ____

024 서답형

각 상황에 맞게 빈칸에 ‘도’ 또는 ‘만’을 넣고, 각 보조사가 더하는 뜻을 쓰자.

기호	상황	완성할 문장
㉠	다른 친구들이 남았고 나 역시 남았다.	나(　) 남았다.
㉡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고 나 혼자 남았다.	나(　) 남았다.

기호	넣을 보조사	더하는 뜻
㉠		
㉡		

025 선택형

‘연필과 지우개를 샀다.’에서 ‘과’와 ‘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과’와 ‘를’은 모두 보조사이다.

② ‘과’는 두 체언을 잇고, ‘를’은 이어진 표현에 목적격을 나타낸다.

③ ‘과’는 지우개만 꾸미는 관형격 조사이다.

④ ‘를’은 앞의 말을 수사로 바꾼다.

⑤ ‘연필과’는 한 단어이므로 더 나눌 수 없다.

답 [　　]

B2 같은 조사도 문장 속에서 확인하기

개념ID: 문법04-06

Q ‘이/가’는 모두 주격 조사일까?

A **아니다. ‘되다·아니다’ 앞에서 필요한 보어를 나타내면 보격 조사이다.** ‘동생이 학생이 되었다’의 첫째 ‘이’는 주격, 둘째 ‘이’는 보격 조사이다.

격 조사의 갈래	예	살필 조사
주격	새가 난다 / 할머니께서 오신다	‘가’ / ‘께서’
목적격	문을 연다	‘을’
보격	얼음이 물이 되었다	둘째 ‘이’
서술격	나는 학생이다	‘이다’
관형격	친구의 가방	‘의’
부사격	학교에 간다 / 동생과 닮았다	‘에’ / ‘과’
호격	친구야, 이리 와.	‘야’

Q ‘와/과’도 모양만으로 갈래가 정해질까?

A **아니다.** ‘사과와 배를 샀다’에서는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잇는 접속 조사이다. ‘나는 동생과 닮았다’에서는 닮은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뒤의 서술어와 문장 전체의 관계를 확인한다.

> **헷갈리는 짝**
> ‘이/가’라는 모양 ↔ 주격·보격이라는 기능. ‘이다’의 ‘이-’를 주격 조사 ‘이’와 혼동하지 않는다.

판별 순서 — 같은 모양의 조사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이/가’: 앞말이 ‘되다·아니다’가 요구하는 보어인가? 무엇이 되는지·무엇이 아닌지를 나타내는가?	보격 조사: ‘얼음이 물이 되었다’의 둘째 ‘이’	주어에 붙었다면 주격 조사: 같은 문장의 첫째 ‘이’
‘와/과’: ‘A와 B’가 같은 자격으로 이어져 한 덩어리로 뒤의 조사를 받는가?	접속 조사: ‘컵과 접시를 씻었다’의 ‘과’	다음 질문 확인
‘와/과’: ‘닮다·비슷하다·같다’ 등이 요구하는 비교의 대상인가?	부사격 조사: ‘사진과 비슷하다’의 ‘과’	문장 전체의 관계를 더 확인

‘되다·아니다’ 바로 앞이라는 위치만으로 보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앞말이 주어인지 보어인지 문장 전체에서 확인한다.

비유로 연결하기 **같은 유니폼, 다른 포지션**

‘얼음이 물이 되었다’의 두 ‘이’는 같은 유니폼을 입었지만 서로 다른 포지션을 맡은 선수와 같다. 첫째 ‘이’는 주어에, 둘째 ‘이’는 보어에 붙는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아무 자리나 맡는다는 뜻이 아니며,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관계 속에서 역할이 정해진다는 점까지만 맞다.

G-15 같은 모양의 조사, 다른 갈래

같은 모양이어도 문장 속 관계에 따라 조사의 갈래가 달라진다.

‘이/가’: 앞말이 ‘되다·아니다’의 보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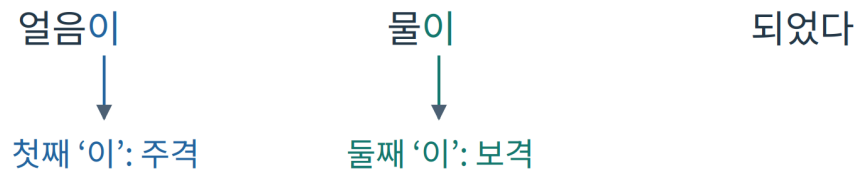
무엇이 되는지·무엇이 아닌지를 나타내는가?

예 → 보격 조사

‘물이’: 무엇이 되었는지 나타냄

아니요(주어에 붙음) → 주격 조사

‘얼음이’: 무엇이 물이 되었는지 나타냄



‘와/과’: 같은 자격으로 이었는가?

‘A와 B’가 한 덩어리로 뒤의 조사를 받는지 확인

예 → 접속 조사

‘컵과 접시를 씻었다.’
‘컵’과 ‘접시’를 연결

비교 대상을 나타내면 → 부사격 조사

‘사진과 비슷하다.’
‘비슷하다’가 요구하는 비교 대상

서술어 바로 앞이라는 위치만으로 보격이라 정하지 않는다. 앞말이 주어인지 보어인지 확인한다.

026 서답형

굵은 조사를 주격·보격·목적격 조사로 분류하자.

기호	문장
㉠	동생**이** 반장이 되었다.
㉡	동생이 반장**이** 되었다.
㉢	동생이 책**을** 읽었다.

기호	조사의 갈래
㉠	
㉡	
㉢	

027 선택형

굵은 '과'의 갈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컵**과** 접시를 씻었다.
㉡ 이 그림은 사진**과** 비슷하다.

① ㉠은 부사격 조사, ㉡은 접속 조사이다.
② ㉠은 접속 조사, ㉡은 부사격 조사이다.
③ 둘 다 접속 조사이다.
④ 둘 다 보조사이다.
⑤ ㉠은 목적격 조사, ㉡은 보격 조사이다.

답 ____

028 서답형

표의 조사를 격 조사의 일곱 갈래(주격·목적격·보격·서술격·관형격·부사격·호격) 중에서 골라 쓰자.

기호	문장	살필 조사
㉠	친구의 우산을 빌렸다.	'의'
㉡	학교에 간다.	'에'
㉢	친구야, 같이 가자.	'야'
㉣	나는 학생이다.	'이다'

기호	조사의 세부 갈래
㉠	
㉡	
㉢	
㉣	

029 선택형

'이것은 돌이 아니다.'의 '은'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과 '이'는 모두 주격 조사이다.

② '은'은 보조사이고 '이'는 서술격 조사이다.

③ '은'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이'는 목적격 조사이다.

④ '은'은 보조사이고 '이'는 보격 조사이다.

⑤ 두 조사는 문맥과 상관없이 같은 갈래이다.

답 ____

030 서답형

아래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한 문장으로 쓰고, 두 ‘가’의 갈래를 쓰자.

문장 내가 의사가 되었다.
판단 “‘가’가 두 번 나오므로 주어도 두 개이다.”

항목	답
고친 판단	
‘내가’의 ‘가’	
‘의사가’의 ‘가’	

B3 동작·작용과 성질·상태

개념ID: 문법04-07

Q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구별할까?

A **뜻과 활용 양상을 함께 살핀다.**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확인할 점	동사 '웃다'	형용사 '높다'
뜻	웃는 동작	높이가 높은 상태
현재 평서형	'웃는다'	'높다'
현재 관형사형	'웃는 아이'	'높은 산'

명령·청유가 자연스러운지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특히 '없다'는 형용사인데 관형사형으로 '없는'을 쓴다. 이는 형용사 '있다·없다'에 나타나는 예외이며, 일반 형용사 '예쁘다·높다'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는'이 있으면 무조건 동사라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

Q 자동사와 타동사는 무엇이 다를까?

A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가 다르다.** '새가 날다'의 '날다'는 자동사, '공을 던지다'의 '던지다'는 타동사이다. '무엇을 읽었니? — 책 읽었어.'처럼 조사가 생략되어도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형용사는 성질·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맑다·크다')와 앞의 상태 등을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이러하다·그러하다')로도 나눈다.

> **헷갈리는 짝**
> '을/를'이 눈에 보이는가 ↔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가.

판별 순서 — 뜻과 활용을 함께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동작·작용을 나타내는가?	동사일 가능성: ② 확인	성질·상태라면 형용사일 가능성: ② 확인
② 현재 평서형에 '-는다/-ㄴ다'가 붙는가?	'웃는다'처럼 동사의 활용을 뒷받침	'높다'처럼 형용사의 활용인지 ③ 확인
③ 현재 관형사형이 '-는'인가?	보통 동사. 단, ④ 확인	'-(으)ㄴ'이면 보통 형용사
④ 형용사 '있다·없다'인가?	'있는·없는'은 예외. '-는'만으로 동사로 판정하지 않음	앞의 뜻과 활용 증거를 합쳐 판단

비유로 연결하기 **동영상과 사진**

‘웃는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동영상, ‘높다’는 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에 비길 수 있다. 동작·작용과 성질·상태의 차이를 먼저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뜻의 느낌을 떠올리는 데까지만 맞으며, ‘있다·없다’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품사는 활용과 함께 판단한다.

G-06 뜻과 활용을 함께 확인하기

뜻과 활용을 함께 확인한다.

동사 · ‘웃다’

뜻: 웃는 동작
현재: ‘웃는다’
관형사형: ‘웃는 아이’

형용사 · ‘높다’

뜻: 높은 상태
현재: ‘높다’
관형사형: ‘높은 산’

예외: 형용사 ‘있다·없다’

‘있는·없는’처럼 예외적으로 ‘-는’이 붙는다.
일반 형용사 ‘예쁘다·높다’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는’ 하나만으로 동사라고 판정할 수 없다. 뜻의 느낌과 실제 활용 양상을 함께 살핀다.

031 선택형

자료를 근거로 한 품사 판정으로 옳은 것은?

기본형	활용
‘달리다’	달린다 / 달리는 아이
‘조용하다’	조용하다 / 조용한 방

① 둘 다 ‘-다’로 끝나므로 같은 품사이다.

② ‘조용하다’는 길이가 길어서 동사이다.

③ ‘달리는’은 뒤의 명사를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④ ‘조용한’은 상태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동사이다.

⑤ ‘달리다’는 동사이고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다.

답 ____

032 서답형

기본형의 품사와 현재 관형사형을 쓰자.

보기 문맥 아이가 웃다 / 산이 높다 / 방에 사람이 없다

기본형	품사	현재 관형사형
‘웃다’		
‘높다’		
‘없다’		

033 선택형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 읽었어.’에는 ‘을’이 없으므로 ‘읽다’는 자동사이다.

② ‘새가 난다.’의 ‘날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③ ‘공을 던졌다.’의 ‘던지다’는 타동사이다.

④ 동사를 나눌 때 목적어가 필요한지 살핀다.

⑤ 조사의 생략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장 관계를 살펴야 한다.

답

034 서답형

각 문장의 용언을 기본형으로 쓰고, 동사인 것은 자동사·타동사, 형용사인 것은 성상·지시 형용사로 나누자.

기호	문장
㉠	새가 난다.
㉡	아이가 문을 연다.
㉢	오늘 하늘은 맑다.
㉣	사정이 그러하다.

기호	기본형	세부 갈래
㉠		
㉡		
㉢		
㉣		

035 선택형

학생의 판단을 바르게 고친 것은?

판단 "'없는 사람'의 '없는'에는 '-는'이 있으므로 '없다'는 동사이다."

①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는'이 붙어 '없는'이 된다. '-는' 하나만으로 동사라고 판정할 수 없다.

② '없다'는 항상 명사이며 활용하지 않는다.

③ '없는'은 한 단어가 아니라 '없'이라는 명사와 조사이다.

④ '없는'은 뒤의 명사를 꾸미므로 '없다'의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었다.

⑤ '-는'이 붙으면 뜻이나 다른 활용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답 [ ]

B4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역할

개념ID: 문법04-08

Q 용언이 둘 이어지면 언제나 '본용언+보조 용언'일까?

A 아니다. 중심 뜻을 나타내는지, 앞 용언에 기대어 뜻을 더하는지를 살핀다.

문장	분석	의미
'나는 새 음식을 먹어 보았다.'	'먹다': 본용언 / '보다': 보조 용언	먹는 일을 시험 삼아 함
'나는 집에 가고 싶다.'	'가다': 본용언 / '싶다': 보조 용언	가기를 바람
'나는 창문을 열고 나갔다.'	'열다'·'나가다': 모두 본용언	여는 일과 나가는 일이 이어짐

Q '보조 용언'은 동사·형용사와 다른 품사일까?

A 아니다. 분류 기준이 다르다. '먹어 보다'의 '보다'는 보조 **동사**, '가고 싶다'의 '싶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동사/형용사는 품사, 본용언/보조 용언은 그 문맥에서의 역할을 나눈 것이다.

비유로 연결하기 **중심 장면과 설명 자막**

'먹어 보았다'에서 먹는 일은 중심 장면, 시험 삼아 했다는 뜻은 그 장면에 붙는 설명 자막과 비슷하다. 자막을 빼면 정보가 달라지듯 보조 용언을 빼면 뜻이 달라진다. **없애도 같은 뜻인 군더더기**라는 비유가 아니다.

헷갈리는 짝

'영화를 보다'의 '보다'는 본용언이다. 같은 기본형도 문맥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 이 책의 본용언·보조 용언 예는 원칙적인 띄어쓰기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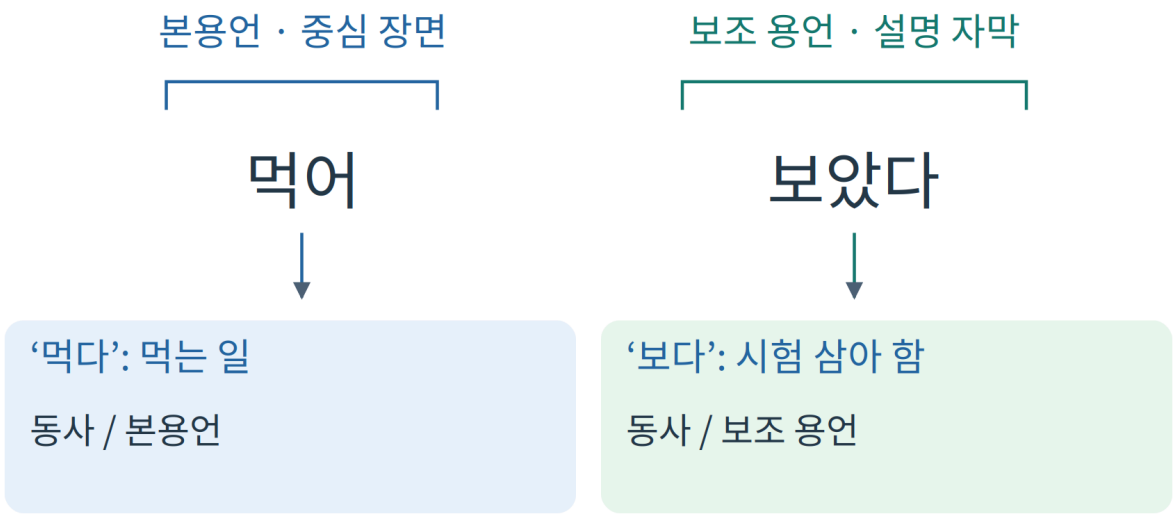
판별 순서 — 이 두 예의 뜻을 비교하기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뒤 용언이 '실제로 보다·실제로 나가다' 같은 제 뜻으로 별도의 동작을 나타내는가?	본용언일 가능성. 문장 전체 확인	앞 동작에 시도·바람 등의 뜻을 더하면 보조 용언일 가능성
② 아래 두 예에서 '-서'를 넣어도 같은 뜻인가?	'열고 나갔다 → 열고서 나갔다': 두 본용언의 연결을 뒷받침	'먹어 보았다 → 먹어서 보았다': 시도의 뜻이 유지되지 않아 보조 용언 분석을 뒷받침

'-서' 넣기는 이 두 예의 보조 확인 방법이다. 모든 문장에서 본용언·보조 용언을 가르는 절대 규칙은 아니다.

G-07 중심 장면에 더해지는 보조 의미

‘먹어 보았다’: 중심 장면에 시도라는 설명 자막이 더해진다.



보조 용언을 빼면 시도·바람 등의 뜻이 달라진다. ‘보조’는 뜻이 없는 군더더기라는 말이 아니다.

036 서답형

굵은 용언의 기본형·품사·역할을 쓰자.

기호	문장
㉠	새 음식을 먹어 **보았다**.
㉡	사진을 **보았다**.
㉢	집에 가고 **싶다**.

기호	기본형	품사	본용언/보조 용언
㉠			
㉡			
㉢			

037 선택형

두 문장의 용언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 문을 열고 나갔다.
㉡ 신발을 신어 보았다.

① 용언이 둘씩 있으므로 둘 다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다.
② ㉠의 '나가다'는 '열다'에 시도의 뜻을 더한다.
③ ㉠은 본용언 둘이 이어졌고, ㉡은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이어졌다.
④ ㉡의 '보다'는 눈으로 신발을 관찰한다는 뜻만 나타낸다.
⑤ ㉠의 두 용언은 모두 형용사이다.

답 ____

038 서답형

'보다'가 본용언인 문장과 보조 용언인 문장을 구별하고, 각각 어떤 뜻인지 쓰자.

기호	문장
㉠	망원경으로 달을 보았다.
㉡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았다.

기호	역할	'보다'의 뜻
㉠		
㉡		

039 선택형

보조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읽어 보다’의 ‘보다’는 보조 동사이다.

② ‘쉬고 싶다’의 ‘싶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③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문맥에서 맡는 역할에 따른 구별이다.

④ 보조 용언을 빼면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⑤ 보조 용언은 모두 동사이므로 보조 형용사는 없다.

답 [ ]

040 서답형

두 문장의 뜻 차이를 쓰고, ㉡에서 그 차이를 만드는 용언의 기본형·품사·역할을 쓰자.

㉠ 나는 제주도에 간다.

㉡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다.

항목	답
뜻 차이	
차이를 만드는 용언의 기본형	
품사	
역할	

C1 어간과 어미가 만드는 활용

개념ID: 문법04-09

Q 활용할 때 중심 뜻과 문법적 뜻은 어디에 있을까?

A 활용할 때 대체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그 뒤에서 바뀌는 부분이 어미이다. 어간은 중심 뜻을 나타내고, 어미는 문법적 뜻과 구실을 나타낸다. '읽고·읽으면·읽었다'의 '읽-'은 어간이다. 어간은 활용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활용에서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위치	갈래	구실	예
선어말 어미(어말 어미 앞)	—	높임·시제·추측	'읽**으시**다'·'읽**었**다'·'읽**겠**다'
어말 어미(단어 끝)	종결 어미	문장을 끝맺음	'읽**다**'
	연결 어미	뒤의 말과 이어 줌	'읽**고**'
	전성 어미 — 명사형	명사처럼 쓰이게 함	'읽**기**'
	전성 어미 — 관형사형	관형사처럼 쓰이게 함	'읽**는**'
	전성 어미 — 부사형	부사처럼 쓰이게 함	'밝**게**'

Q 명사형·관형사형이 되면 품사가 바뀔까?

A 활용한 것이므로 원래 용언의 품사는 유지된다. '책을 읽기'의 '읽기'는 동사의 명사형, '읽는 아이'의 '읽는'은 동사의 관형사형이다. '밝은 방'의 '밝은'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접미사로 새 단어를 만드는 파생과 구별한다.

비유로 연결하기 **중심 내용에 붙이는 표현 카드**

'읽-'에 '높임 카드'인 '-으시-', '과거 카드'인 '-었-', '끝맺음 카드'인 '-다'를 붙이면 '읽으셨다'가 된다. 카드는 실제로는 어미이며, 어떤 어미든 아무 순서로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읽다'처럼 선어말 어미가 없는 형태도 있다.

헷갈리는 짝

어미는 형태소이지만 독립된 단어가 아니므로 아홉 품사 중 하나로 분류하지 않는다. '먹고는'은 어미 '-고' 뒤에 보조사 '는'이 붙은 경우이다.

G-08 어간 뒤에 붙는 표현 카드

‘읽으셨다’ = ‘읽-’ + ‘-으시-’ + ‘-었-’ + ‘-다’

‘읽-’	‘-으시-’	‘-었-’	‘-다’
어간 중심 뜻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거	어말 어미 끝맺음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놓임
높임·시제·추측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다’
연결 어미: ‘-고’
전성 어미:
명사형 ‘-기’
관형사형 ‘-는’
부사형 ‘-게’

‘읽- + -고 → 읽고’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아홉 품사 중 하나로 세지 않는다.

041 선택형

‘읽으셨다’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분석에서는 줄어든 형태를 ‘읽- + -으시- + -었- + -다’로 풀어 나타낸다.

① ‘-다’는 어간이고 ‘읽-’은 어미이다.
② ‘-으시-’는 단어 끝에 있으므로 종결 어미이다.
③ ‘-었-’은 과거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읽-’은 어간이고, ‘-으시-’와 ‘-었-’은 선어말 어미이다.
⑤ 네 부분은 각각 별개의 단어이다.

답 ____

042 서답형

굵은 어미를 종결·연결·명사형 전성·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분류하자.

기호	자료
㉠	나는 책을 읽었**다**.
㉡	책을 읽**고** 잠들었다.
㉢	책을 읽**기**가 쉽다.
㉣	책을 읽**는** 아이

기호	어미의 갈래
㉠	
㉡	
㉢	
㉣	

043 선택형

‘책을 읽기가 즐겁다.’의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가 붙었으므로 어떤 문맥에서나 명사이다.

② 동사 ‘읽다’의 명사형이며 이 문맥에서 품사는 동사이다.

③ ‘읽기’는 뒤의 형용사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④ ‘-기’는 주격 조사이다.

⑤ ‘읽-’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답 ____

044 서답형

자료를 어간·선어말 어미·어말 어미로 나누자. 선어말 어미가 없으면 '없음'을 쓰자.

기호	자료
㉠	먹었다
㉡	먹고
㉢	먹겠다

기호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			
㉡			
㉢			

045 선택형

어미와 품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u>옳지 않은</u> 것은?

① '먹고'의 '-고'는 연결 어미이다.

② '밝은 방'의 '밝은'은 명사를 꾸미므로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었다.

③ '높게'의 '-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④ '먹겠다'의 '-겠-'은 선어말 어미이다.

⑤ 어미는 아홉 품사 중 하나로 세지 않는다.

답 ____

C2 모습이 달라져도 규칙 활용

개념ID: 문법04-10

Q 어간 모습이 달라지면 모두 불규칙 활용일까?

A 아니다.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변화도 규칙 활용에 포함한다.

결합	결과	이 책의 분류	확인할 변화
‘먹- + -고’	‘먹고’	규칙 활용	어간·어미 형태 유지
‘가- + -아’	‘가’	규칙 활용	같은 모음 ‘ㅏ’ 하나가 탈락함(동음 탈락)
‘쓰- + -어’	‘써’	규칙 활용	어간 끝의 ㅡ 탈락
‘살- + -는’	‘사는’	규칙 활용	어간 끝의 ㄹ 탈락

‘ㄹ’ 탈락은 모든 어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살-+-고’는 ‘살고’이다. ‘ㄴ·ㅂ·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등 정해진 환경에서 나타나는 규칙적 변화로 배운다.

Q 규칙·불규칙은 맞는 말·틀린 말이라는 뜻일까?

A 아니다. 둘 다 올바른 활용을 설명하는 이름이다. 불규칙 활용은 특정 용언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변화이다.

> **헷갈리는 짝**
> ‘변화가 있다’ ↔ ‘불규칙이다’. 변화의 유무만 묻지 말고 어떤 변화인지 확인한다.

판별 순서 — 규칙과 불규칙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제시된 결합에서 어간·어미의 모습이 바뀌었는가?	② 확인	이 결합에서는 형태 유지. 다른 어미 앞의 활용도 확인
② 변화가 같은 조건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ㅡ·ㄹ·동음 탈락, 모음 축약 등)으로 설명되는가?	규칙 활용	③ 확인
③ ‘듣다·짓다’ 등 특정 용언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불규칙 활용. ④ 확인	단어와 결합 어미를 다시 확인
④ 어간이 바뀌었는가?	어간 변화 유형. 어미도 바뀌면 둘 다 변화하는 유형	어미만 바뀌었다면 어미 변화 유형

불규칙 용언도 '듣고'처럼 어떤 어미 앞에서는 모습이 유지된다. 한 활용형만 보고 단어 전체를 규칙 용언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비유로 연결하기 **공통 교칙과 특정한 사정**

같은 조건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통 교칙은 규칙 활용, 특정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별도 처리는 불규칙 활용에 비길 수 있다. '살다→사는'의 ㄹ 탈락과 '듣다→들어'의 특별한 변화를 비교한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조건에 따른 공통 변화와 특정 용언의 특별한 변화를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으며, 불규칙 활용도 틀린 말이 아니라 올바른 활용이다.

G-09 달라져도 규칙 활용

모습이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변화인지 확인한다.

'쓰- + -어 → 써'

'ㅡ' 탈락
규칙 활용

'살- + -는 → 사는'

'ㄹ' 탈락
규칙 활용

'가- + -아 → 가'

같은 모음 'ㅏ' 하나가 탈락함(동음 탈락)
규칙 활용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변화도 규칙 활용이다. '살- + -고 → 살고'처럼 적용 환경이 아니면 'ㄹ'이 남는다.

046 서답형

결과 형태를 쓰고,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표시하자.

결합	결과 형태	분류
‘쓰- + -어’		
‘살- + -는’		
‘먹- + -고’		

047 선택형

규칙 활용의 예만 묶인 것은?

① ‘듣다→들어 / 쓰다→써’

② ‘쓰다→써 / 살다→사는’

③ ‘춥다→추워 / 살다→사는’

④ ‘짓다→지어 / 듣다→들어’

⑤ ‘파랗다→파래 / 춥다→추워’

답 ____

048 서답형

표를 채우고, 어간의 ㄹ이 언제나 없어지는지 판단하자.

결합	결과	ㄹ 탈락 O/X
‘밀- + -는’		
‘밀- + -고’		
‘밀- + -니’		

판단할 내용	답
ㄹ이 언제나 없어지는가? 근거는?	

049 선택형

‘가-+-아→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어미가 눈에 안 보이므로 처음부터 어미가 없었다.

② 모든 탈락은 불규칙이므로 불규칙 활용이다.

③ ‘가’는 활용할 수 없는 관형사이다.

④ 같은 모음 하나가 탈락한 규칙 활용이다.

⑤ 어미가 붙으면 항상 음절 수가 늘어난다.

답 ____

050 서답형

판단을 고치고, 자료에서 반례 두 개를 들어 설명하자.

판단 “활용 결과에서 어간의 소리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모두 불규칙 활용이다.”

자료 ‘살- + -는 → 사는’ / ‘쓰- + -어 → 써’

항목	답
고친 판단	
‘사는’의 근거	
‘써’의 근거	

C3 특정 어간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개념ID: 문법04-11

Q 같은 받침이면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까?

A 아니다. 어떤 단어인지와 어떤 어미가 붙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갈래	불규칙 활용	비교할 규칙 활용
ㄷ	‘듣- + -어 → 들어’	‘닫- + -아 → 닫아’
ㅂ	‘춥- + -어 → 추워 / 돕- + -아 → 도와’	‘잡- + -아 → 잡아’
ㅅ	‘짓- + -어 → 지어’	‘벗- + -어 → 벗어’
르	‘흐르- + -어 → 흘러’	‘치르- + -어 → 치러’
우	‘푸- + -어 → 퍼’	‘주- + -어 → 줘’

이 책은 ‘르’ 불규칙을 어간이 바뀌는 유형으로 다룬다. ‘흘러’는 ‘르’가 ‘ㄹㄹ’로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고, ‘치러’는 ㅡ 탈락으로 구별한다. ‘줘’는 모음 축약으로 설명되는 규칙 활용이다.

Q ‘듣고’에서는 ㄷ이 남으니 ‘듣다’는 규칙 동사일까?

A 아니다. 특정 어미 앞에서의 특별한 변화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듣고’에서는 ㄷ이 남지만 ‘듣어’가 아니라 ‘들어’로 활용하므로 ‘듣다’는 ㄷ 불규칙 동사이다. 불규칙이라는 말은 매번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 **헷갈리는 짝**
> ‘길을 묻다→물어’와 ‘씨앗을 묻다→묻어’. 기본형의 글자가 같아도 뜻이 다른 단어이므로 활용도 다를 수 있다.

판별 순서는 C2의 표를 따른다.

G-10 같은 받침, 다른 어간의 변화

같은 받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활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ㄷ 받침 비교

‘듣- + -어 → 들어’
ㄷ 불규칙
‘닫- + -아 → 닫아’
규칙 활용

ㅅ 받침 비교

‘짓- + -어 → 지어’
ㅅ 불규칙
‘벗- + -어 → 벗어’
규칙 활용

기본형·뜻·결합하는 어미를 함께 확인한다. ‘듣다’는 ㄷ 불규칙 동사이지만 ‘듣고’에서는 ‘ㄷ’이 그대로 남는다.

051 선택형

활용 결과와 갈래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닫- + -아 → 달아: ㄷ 불규칙
② 듣- + -어 → 들어: ㄷ 불규칙
③ 벗- + -어 → 버어: ㅅ 불규칙
④ 잡- + -아 → 자와: ㅂ 불규칙
⑤ 주- + -어 → 줘: 우 불규칙

답 ____

052 서답형

문맥에 맞는 활용형과 규칙·불규칙 여부를 쓰자.

기호	문맥	결합
㉠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상황	‘묻- + -어’
㉡	씨앗을 흙 속에 넣는 상황	‘묻- + -어’
㉢	추운 날씨를 말하는 상황	‘춥- + -어’
㉣	공을 잡는 상황	‘잡- + -아’

기호	활용형	규칙/불규칙(갈래)
㉠		
㉡		
㉢		
㉣		

053 선택형

‘듣고’와 ‘들어’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듣고’가 가능하므로 ‘들어’는 틀린 활용이다.

② 불규칙 동사는 모든 어미 앞에서 어간이 반드시 달라진다.

③ ‘듣다’는 ㄷ 불규칙 동사이지만 ‘-고’ 앞에서는 ㄷ이 바뀌지 않는다.

④ ‘들어’의 ㄹ 변화는 조사가 붙어서 생겼다.

⑤ ‘듣고’와 ‘들어’는 반드시 뜻이 다른 두 동사이다.

답 ____

054 서답형

결과 형태를 쓰고, 두 결과가 같은 변화인지 설명하자.

결합	결과 형태	규칙/불규칙(갈래)
‘흐르- + -어’		
‘치르- + -어’		

항목	답
두 변화의 차이	

055 선택형

불규칙 활용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돕- + -아 → 도와’

② ‘춥- + -어 → 추워’

③ ‘푸- + -어 → 퍼’

④ ‘짓- + -어 → 짓어’

⑤ ‘흐르- + -어 → 흘러’

답 ____

C4 어미도 달라지는 불규칙

개념ID: 문법04-11

Q 불규칙 활용에서는 어간만 달라질까?

A 어미가 달라지거나 어간과 어미가 함께 달라지기도 한다.

갈래	결합과 결과	이 책의 분석
여 불규칙	'하- + -아 → 하여'(줄면 '해')	어미 '-아'가 '-여'로 바뀜
러 불규칙	'이르- + -어 → 이르러'	'도달하다'라는 뜻의 '이르다'. 어미 '-어'가 '-러'로 바뀜
ㅎ 불규칙	'파랗- + -아 → 파래'	어간과 어미가 함께 달라짐

'좋다→좋아'는 ㅎ이 남는 규칙 활용이다. 'ㅎ으로 끝나면 모두 ㅎ 불규칙'이 아니다.

Q '흘러·이르러·치러'는 끝이 비슷하니 같은 변화일까?

A 결합 전의 어간과 결합 후의 모습을 비교해야 한다. '흐르다→흘러'는 르 불규칙, '도달하다'라는 뜻의 '이르다→이르러'는 러 불규칙, '치르다→치러'는 ㅡ 탈락에 따른 규칙 활용이다.

비유로 연결하기 **도착 사진만 보지 말고 출발 사진과 비교하기**

결과가 '러'로 끝난다는 도착 사진만 보면 세 변화를 혼동하기 쉽다. 출발점인 어간을 옆에 놓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인다. 실제 이동 경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 전후를 비교하자**는 비유이다.

헷갈리는 짝

르 불규칙 ↔ 러 불규칙. 이름의 끝글자만 외우지 말고 '흐르-→흘러', '이르-→이르러'를 나란히 확인한다.

판별 순서는 C2의 표를 따른다.

규칙·불규칙 종합표

구분	갈래	예	비교할 규칙 활용
규칙(탈락)	ㅡ 탈락·ㄹ 탈락·동음 탈락	'써'·'사는'·'가'	—
불규칙: 어간이 바뀜	ㄷ·ㅂ·ㅅ·르·우	'들어'·'추워'·'지어'·'흘러'·'퍼'	'닫아'·'잡아'·'벗어'·'치러'·'줘'
불규칙: 어미가 바뀜	여·러	'하여'·'이르러'	—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바뀜	ㅎ	'파래'	'좋아'

G-11 흘러·이르러·치러의 출발점 비교

결과의 끝글자보다 어간과 어미의 변화 전후를 비교한다.

‘흐르- + -어’

→ ‘흘러’

르 불규칙

어간의 ‘르’ → ‘ㄹㄹ’

‘이르- + -어’

→ ‘이르러’

러 불규칙

어미 ‘-어’ → ‘-러’

‘치르- + -어’

→ ‘치러’

규칙 활용

‘—’ 탈락

이 책은 ‘르’ 불규칙을 어간이 바뀌는 유형으로 다룬다. ‘이르러’는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의 ‘이르다’에서 나온다.

056 서답형

활용형과 불규칙의 갈래를 쓰자.

결합	활용형	불규칙의 갈래
‘하- + -아’		
‘이르- + -어’(‘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		
‘파랗- + -아’		

057 선택형

‘이르다’의 활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문맥 한참 걸어서 산 정상에 이르다.

① ‘이르-+-어’는 ‘일러’가 되며 이 문맥에서 르 불규칙이다.

② ‘이르-+-어’는 언제나 ‘이러’가 된다.

③ ‘이르-+-어’는 ‘이르러’가 되며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다.

④ ‘이르러’에는 어미가 없다.

⑤ 끝에 ‘러’가 있으므로 ‘흘러’와 반드시 같은 유형이다.

답

058 서답형

결과를 쓰고, 규칙·불규칙 여부를 비교하자.

결합	결과	규칙/불규칙(갈래)
‘파랗- + -아’		
‘좋- + -아’		

항목	답
ㅎ 받침만으로 유형을 정할 수 있는가?	

059 선택형

다음 결과의 분류를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 흘러(흐르다)　㉡ 이르러(정상에 이르다)　㉢ 치러(시험을 치르다)

① ㉠ 르 불규칙 / ㉡ 러 불규칙 / ㉢ 규칙
② ㉠ 러 불규칙 / ㉡ 르 불규칙 / ㉢ 규칙
③ ㉠ 르 불규칙 / ㉡ 르 불규칙 / ㉢ 르 불규칙
④ ㉠ 규칙 / ㉡ 러 불규칙 / ㉢ 르 불규칙
⑤ ㉠ 러 불규칙 / ㉡ 러 불규칙 / ㉢ 러 불규칙

답 [ ]

060 서답형

자료를 '어간만·어미만·어간과 어미'가 특별하게 바뀌는 경우로 나누자. 이 책의 분류를 적용한다.

기호	자료
㉠	듣- + -어 → 들어
㉡	하- + -아 → 하여
㉢	파랗- + -아 → 파래

기호	바뀌는 부분	불규칙의 갈래
㉠		
㉡		
㉢		

S4 수식과 문맥 속 품사

D1 관형사와 관형사형은 다르다

개념ID: 문법04-12 · 문법04-13

Q 명사를 꾸미는 말은 모두 관형사일까?

A 아니다. ‘관형사’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다.

표현	꾸미는 말의 기본형	품사	문장 안의 구실
새 가방	‘새’	관형사	가방을 꾸미는 관형어
예쁜 가방	‘예쁘다’	형용사	가방을 꾸미는 관형어
읽는 아이	‘읽다’	동사	아이를 꾸미는 관형어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고 체언 앞에서 꾸민다. 조사도 붙지 않는다. ‘새 가방’의 ‘새’는 성상 관형사, ‘이 가방’의 ‘이’는 지시 관형사, ‘두 가방’의 ‘두’는 수 관형사이다. ‘예쁜’은 ‘예쁘다’가, ‘읽는’은 ‘읽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비유로 연결하기 **분류표와 역할표를 따로 보기**

한 반의 서로 다른 학생도 발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품사의 단어가 관형어라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두 분류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모든 단어의 품사가 어떤 문맥에서도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헷갈리는 짝

관형사 ↔ 관형사형. ‘관형사형’은 용언의 활용형 이름이며 관형사라는 품사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판별 순서 — 체언 앞에서 꾸미는 말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어미를 확인하여 활용 전 기본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예쁜 → 예쁘다’)	용언의 관형사형	② 확인
② 활용한 말이 아니며, 체언을 꾸미고 조사도 붙지 않는가?	관형사: ‘새 책’의 ‘새’	다른 품사의 관형어 쓰임인지 문맥 확인

G-12 품사표와 역할표를 따로 보기

같은 역할표를 달아도 품사표는 다를 수 있다.

‘새 가방’의 ‘새’

품사표: 관형사
역할표: 관형어
활용하지 않음

‘예쁜 가방’의 ‘예쁜’

품사표: 형용사
역할표: 관형어
기본형: ‘예쁘다’

서로 다른 학생이 같은 발표 역할을 맡듯, 다른 품사도 같은 문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단어의 품사가 언제나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061 선택형

굵은 말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새** 신발을 샀다.
㉡ **예쁜** 신발을 샀다.

① 둘 다 신발을 꾸미므로 품사가 관형사이다.
② ‘새’는 ‘새다’가 활용한 형용사이다.
③ ‘예쁜’은 활용하지 않으므로 불변어이다.
④ 두 말은 모두 관형어이지만, ‘새’는 관형사이고 ‘예쁜’은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⑤ 두 말의 품사가 다르므로 같은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답 ____

062 서답형

굵은 말의 기본형·품사·문장 성분을 쓰자. 활용하지 않는 말은 그 말을 그대로 쓴다.

기호	문장
㉠	**이** 가방이 가볍다.
㉡	**작은** 가방이 가볍다.
㉢	**웃는** 아이가 보인다.

기호	기본형	품사	문장 성분
㉠			
㉡			
㉢			

063 선택형

관형사만으로 묶인 것은?

각 말은 괄호 안의 문맥에서 판단한다.

① '새'('새 공책'), '작은'('작은 공책'), '두'('두 권')
② '이'('이 공책'), '읽는'('읽는 아이'), '두'('두 권')
③ '새'('새 공책'), '이'('이 공책'), '두'('두 권')
④ '둘'('둘이 왔다'), '이'('이 공책'), '새'('새 공책')
⑤ '매우'('매우 크다'), '새'('새 공책'), '두'('두 권')

답 ☐

064 서답형

판단을 고치고, ‘새’와 ‘높은’의 차이를 활용 여부로 설명하자.

자료 새 집 / 높은 집
판단 “집을 꾸미는 두 말은 모두 관형사이다.”

항목	답
고친 판단	
활용 여부를 이용한 근거	

065 선택형

‘두 작은 상자’의 ‘두’와 ‘작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② ‘두’와 ‘작은’은 모두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③ ‘작은’의 기본형은 ‘작다’이다.
④ 두 말 모두 ‘상자’를 꾸민다.
⑤ 같은 체언을 꾸며도 두 말의 품사는 다르다.

답 ____

D2 꾸미는 범위와 독립적인 말

개념ID: 문법04-12

Q 부사는 동사만 꾸밀까?

A **아니다.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다른 부사·관형사나 문장 전체 등을 꾸미기도 한다.** '매우 높다'에서는 형용사, '아주 빨리 걷다'에서는 '아주'가 부사 '빨리'를 꾸민다. '바로 오늘'처럼 일부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사 앞이면 관형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갈래	구실	예
성분 부사	특정 성분을 꾸밈	아주 빨리 / 잘 달린다 / 안 간다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문장을 이어 줌	과연 그 말이 맞았다 / 비가 왔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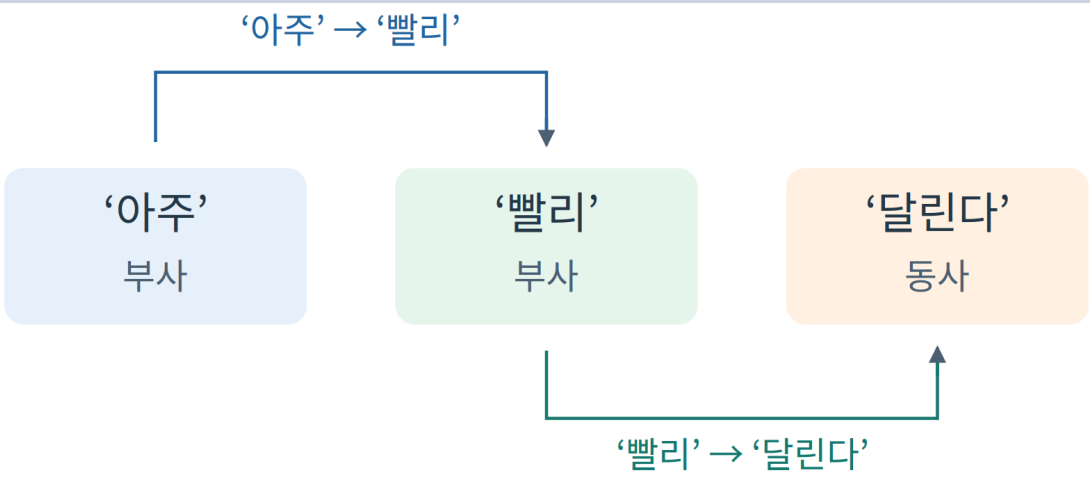
Q 감탄사는 느낌만 나타낼까?

A **느낌뿐 아니라 부름이나 대답도 나타낸다.** '아, 아름답다.'의 '아',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의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의 '네'가 예이다.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 **헷갈리는 짝**
> 감탄사 ↔ 느낌표가 붙은 말. 문장부호나 문장 맨 앞이라는 위치만으로 품사를 정하지 않는다. '책!'처럼 명사 뒤에도 느낌표를 붙일 수 있다.

G-13 부사가 직접 꾸미는 말

‘아주 빨리 달린다’에서 화살표는 직접 꾸미는 방향이다.



부사는 용언뿐 아니라 다른 부사도 꾸밀 수 있다.

066 서답형

굵은 부사가 직접 꾸미는 말을 쓰자.

기호	문장
㉠	산이 **매우** 높다.
㉡	아이가 **아주** 빨리 달린다.
㉢	아이가 아주 **빨리** 달린다.

기호	직접 꾸미는 말
㉠	
㉡	
㉢	

067 선택형

자료의 굵은 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비가 왔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됐다.
㉡ **네**, 알겠습니다.

① ‘그러나’는 문장을 잇는 부사이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둘 다 문장 앞에 있으므로 감탄사이다.
③ ‘그러나’는 두 명사를 잇는 접속 조사이다.
④ ‘네’는 반드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⑤ ‘그러나’는 활용하는 동사이다.

답 ____

068 서답형

굵은 말의 품사를 쓰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쓰자.

기호	문장
㉠	**아**, 경치가 좋다.
㉡	**네**, 문을 닫겠습니다.
㉢	책을 **네** 권 빌렸다.

기호	품사	근거
㉠		
㉡		
㉢		

069 선택형

부사·감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주 빨리’에서 ‘아주’는 다른 부사를 꾸민다.

② ‘과연 그 말이 맞았다.’의 ‘과연’은 문장 전체와 관련되는 부사이다.

③ 느낌표가 붙은 말은 모두 감탄사이다.

④ ‘네, 알겠습니다.’의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그러나’는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로 쓰인다.

답 ____

070 서답형

두 부사가 직접 꾸미는 말을 쓰고,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을 고치자. 자료의 두 ‘바로’는 모두 부사이다.

㉠ 행사는 바로 오늘 열린다.

㉡ 친구는 바로 출발했다.

판단 “㉠의 ‘바로’는 명사 앞에 있으므로 관형사이고, ㉡의 ‘바로’는 동사 앞에 있으므로 부사이다.”

항목	답
㉠에서 ‘바로’가 직접 꾸미는 말	
㉡에서 ‘바로’가 직접 꾸미는 말	
고친 판단	

D3 같은 모양, 다른 문맥

개념ID: 문법04-14

Q 글자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품사일까?

A 아니다. 실제 쓰임을 확인해야 한다.

문맥	대상의 품사	근거
‘잘못을 인정했다’	‘잘못’: 명사	그릇된 일의 이름이며 목적어의 중심
‘주소를 잘못 적었다’	‘잘못’: 부사	적은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며 용언을 꾸밈
‘계획대로 움직였다’	‘대로’: 조사	체언 ‘계획’ 뒤에 붙음
‘들은 대로 적었다’	‘대로’: 의존 명사	관형어 ‘들은’ 뒤에 띄어 씀
‘너뿐이다’	‘뿐’: 조사	체언 ‘너’ 뒤에 붙음
‘웃을 뿐이다’	‘뿐’: 의존 명사	관형어 ‘웃을’ 뒤에 띄어 씀
‘방이 밝다’	‘밝다’: 형용사	방의 밝은 상태를 나타냄
‘날이 밝는다’	‘밝다’: 동사	날이 밝아지는 작용을 나타냄

Q 띄어쓰기만 외우면 충분할까?

A 앞말의 종류와 대상의 구실을 함께 확인한다. 이 표의 ‘대로·뿐’은 체언 뒤인지 관형어 뒤인지에 따라 조사와 의존 명사로 구별된다.

> **헷갈리는 짝**
> ‘모양이 같음’과 ‘한 단어의 여러 쓰임’은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니다. 동음이의어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관계의 이름을 맞히기보다 **주어진 문맥에서의 품사와 근거**를 묻는다.

판별 순서 — 이 묶음의 문맥 비교

확인할 질문	그렇다면	아니라면
① ‘대로·뿐’ 앞말이 체언인가?	이 예에서는 조사: ‘계획대로·너뿐’	관형어 뒤라면 의존 명사: ‘들은 대로·웃을 뿐’
② ‘잘못’이 그릇된 일의 이름이며 뒤에 조사가 붙는가?	명사: ‘잘못을 인정하다’	용언을 꾸미는지 ③ 확인
③ ‘잘못’이 뒤의 용언을 꾸미는가?	부사: ‘잘못 적다’	앞뒤 문맥과 해당 단어의 뜻을 더 확인

이 표는 제시된 말들의 비교이다. 조사 결합 하나만으로 모든 단어를 명사라고 판정하는 표가 아니다.

비유로 연결하기 **한 배우의 두 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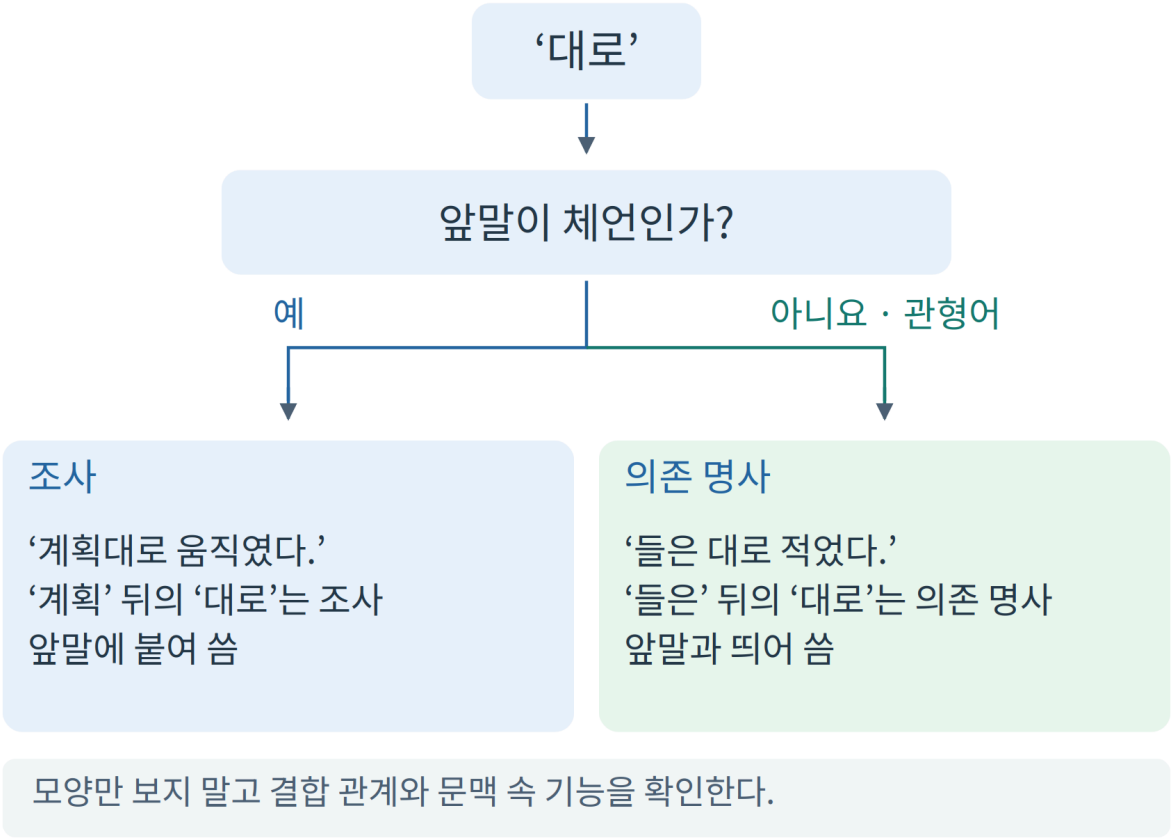
‘잘못을 인정하다’와 ‘잘못 적다’의 ‘잘못’은 같은 얼굴의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 다른 배역을 맡는 모습에 비길 수 있다. 문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품사를 판단한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같은 모양이 다른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맞으며, 글자만 같고 실제로는 서로 다른 낱말인 경우도 있다.

G-14 대로의 앞말에서 갈라지는 두 쓰임

이 두 문장에서 ‘대로’ 앞의 말과 구실을 비교한다.



모양만 보지 말고 결합 관계와 문맥 속 기능을 확인한다.

071 선택형

굵은 '잘못'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주소를 **잘못** 적었다.

① ㉠은 명사이고 ㉡은 부사이다.
② 둘 다 글자가 같으므로 명사이다.
③ ㉠은 부사이고 ㉡은 명사이다.
④ ㉠의 '잘못'은 뒤에 조사가 있으므로 동사이다.
⑤ ㉡의 '잘못'은 뒤의 용언과 합쳐 하나의 형용사이다.

답 ____

072 서답형

괄호 안에서 바르게 쓴 것을 골라 쓰고, '대로'의 품사를 쓰자.

기호	문장
㉠	우리는 (계획대로 / 계획 대로) 움직였다.
㉡	나는 (들은대로 / 들은 대로) 적었다.

기호	바른 표현	'대로'의 품사
㉠		
㉡		

073 선택형

‘뿐’의 품사와 띄어쓰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 나는 웃을 뿐이다.

① 둘 다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야 한다.
② 둘 다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야 한다.
③ ㉠은 관형사이고 ㉡은 부사이다.
④ ㉠은 조사로 ‘너’에 붙이고, ㉡은 의존 명사로 ‘웃을’과 띄운다.
⑤ ㉡의 ‘뿐’은 앞말에 기대므로 단어가 아니다.

답 ____

074 서답형

굵은 ‘이’의 품사를 쓰고, 문장 속 근거를 짧게 쓰자.

기호	문장
㉠	**이** 가방은 가볍다.
㉡	가방**이** 가볍다.

기호	품사	근거
㉠		
㉡		

075 선택형

문맥에 따른 품사 판정 방법으로 <u>옳지 않은</u> 것은?

① ‘잘못을’과 ‘잘못 적다’에서 각각 어떤 구실을 하는지 비교한다.

② ‘대로’ 앞에 체언이 오는지 관형어가 오는지 살핀다.

③ ‘이’가 뒤의 명사를 꾸미는지 앞의 명사에 붙는지 살핀다.

④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일 가능성을 열어 둔다.

⑤ 사전에 여러 품사가 나오면 문맥을 보지 않고 첫 번째 품사만 고른다.

답 [ ]

D4 분류 기록을 연결하는 종합

개념ID: 문법04-01 · 문법04-02 · 문법04-04 · 문법04-06 · 문법04-08 · 문법04-09 · 문법04-11 · 문법04-12 · 문법04-13 · 문법04-14

Q 품사를 설명하려면 무엇을 함께 기록하면 좋을까?

A **문맥 속 형태, 기본형, 품사, 판단 근거를 연결한다.** 활용형이라면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문장 성분이나 본용언·보조 용언 역할을 따로 기록한다.

서로 다른 질문	가능한 답의 예
무슨 품사인가?	명사, 동사, 관형사 등
활용하는가?	가변어 / 불변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인가?	관형어, 부사어 등
용언의 중심·보조 역할은?	본용언 / 보조 용언

Q 같은 역할을 하면 같은 품사이고, 같은 품사면 같은 역할일까?

A **둘 다 단정할 수 없다.** '새 책'의 '새'와 '읽는 아이'의 '읽는'은 모두 관형어지만 품사는 다르다. 명사 '학교'도 '학교가 크다'에서는 조사와 함께 주어를, '학교에 간다'에서는 조사와 함께 부사어를 이룬다.

> **헷갈리는 짝**
> 품사 이름·활용형 이름·문장 역할 이름을 한 칸에 섞지 않는다. '형용사 / 관형사형 / 관형어'는 각각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완성된 분석 기록의 예

문장: "우리 동생은 웃으며 천천히 걷는다."

문맥 속 형태	기본형(활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품사	활용 O/X	문장 성분	본용언/보조 용언
'우리'	'우리'	대명사	X	관형어('동생'을 꾸밈)	해당 없음
'천천히'	'천천히'	부사	X	부사어('걷는다'를 꾸밈)	해당 없음
'걷는다'	'걷다'	동사	O	서술어	본용언

'우리 동생'의 '우리'처럼 대명사도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품사는 여전히 대명사이다.

G-16 한 낱말에 붙는 네 장의 기록표

서로 다른 질문에는 각각의 기록표로 답한다.

‘읽는 아이’의 ‘읽는’	‘새 책’의 ‘새’
품사: 동사	품사: 관형사
활용: 가변어(관형사형)	활용: 불변어
문장 성분: 관형어	문장 성분: 관형어
기본형: ‘읽다’	기본형: ‘새’(활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문장 성분은 같고 품사는 다르다. 활용하지 않는 말은 기본형을 적는 칸에 그 말을 그대로 쓴다.

076 서답형

굵은 말의 기본형·품사와 활용 여부를 쓰자. 활용하면 O, 활용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자. 활용하지 않는 말은 그 말을 그대로 쓴다.

기호	문장
㉠	**새** 책을 골랐다.
㉡	**읽는** 아이가 보인다.
㉢	방이 **매우** 밝다.
㉣	그는 학생**이다**.

기호	기본형	품사	활용 O/X
㉠			
㉡			
㉢			
㉣			

077 선택형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는 새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보았다.

① '새'는 관형사이고 '보았다'의 '보다'는 보조 동사이다.
② '나는'의 '는'은 동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③ '방법으로'의 '으로'는 두 체언을 잇는 접속 조사이다.
④ '문제를'의 '문제'는 목적어이므로 품사가 목적격 조사이다.
⑤ '풀어'와 '보았다'는 각각 명사와 형용사이다.

답 ____

078 서답형

잘못된 분류 기록 세 곳을 모두 고치고, 각각 근거를 쓰자.

기호	문맥	잘못된 기록
㉠	예쁜 그림	‘예쁜’: 관형사
㉡	학교가 크다	‘학교’: 조사 ‘가’가 붙어 가변어
㉢	가고 싶다	‘싶다’: 보조사

기호	바른 기록	근거
㉠		
㉡		
㉢		

079 선택형

두 문장을 함께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나는 들은 대로 적었다.
㉡ 나는 계획대로 적어 보았다.

① 두 ‘대로’는 모양이 같으므로 모두 조사이다.
② ㉠의 ‘들은’은 명사를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③ ㉡의 ‘계획’은 뒤에 조사가 붙으므로 활용한 동사이다.
④ ㉡의 ‘보았다’는 별도의 보는 동작만 나타내는 본용언이다.
⑤ ㉠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의 ‘보았다’는 보조 동사의 활용형이다.

답 ____

080 서답형

세 단계 표를 완성한 뒤, 아래 판단에서 틀린 내용 세 가지를 모두 고쳐 쓰자.

자료 아이가 들은 내용을 새 공책에 적어 보았다.
분석 대상 ‘들은’ / ‘새’ / ‘보았다’
판단 “‘들은’과 ‘새’는 둘 다 ‘내용’을 꾸미므로 같은 품사이고, ‘보았다’는 조사이다.”

단계	대상과 요구	답
1	‘들은’의 기본형과 품사	
2	‘새’가 꾸미는 체언과 ‘새’의 품사	
3	‘보았다’의 기본형·품사·역할	

항목	답
판단의 틀린 내용 세 가지 고치기	

S5 정답 한눈표

선택형 40문항의 정답이다. 서답형 예시 답안은 S6의 해당 문항에 제시한다.

묶음	선택형 정답
A1	001 ② · 003 ① · 005 ⑤
A2	007 ④ · 009 ⑤
A3	011 ④ · 013 ① · 015 ⑤
A4	017 ③ · 019 ③
B1	021 ③ · 023 ⑤ · 025 ②
B2	027 ② · 029 ④
B3	031 ⑤ · 033 ① · 035 ①
B4	037 ③ · 039 ⑤
C1	041 ④ · 043 ② · 045 ②
C2	047 ② · 049 ④
C3	051 ② · 053 ③ · 055 ④
C4	057 ③ · 059 ①
D1	061 ④ · 063 ③ · 065 ②
D2	067 ① · 069 ③
D3	071 ① · 073 ④ · 075 ⑤
D4	077 ① · 079 ⑤

S6 정답과 해설

서답형 정답은 예시 답안이다. 요구한 분류와 근거가 모두 맞으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도 인정한다. 선택형의 O/X는 선지 내용의 참·거짓이며,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은 X인 선지가 정답이다.

A1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질문

001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대상의 이름이라는 뜻의 성질은 의미 기준이다.
②	O	어미가 바뀌며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므로 형태 기준이다.
③	X	무엇을 꾸미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능 기준이다.
④	X	글자 수는 문장에서 하는 구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
⑤	X	음절 수는 이름·동작·상태 같은 의미의 성질과 다르다.

과정 한 줄 형태·기능·의미의 질문 구별하기.

002 예시 답안

- 가변어: '읽다'·'예쁘다'·'이다'
- 불변어: '나'·'매우'
- '책'은 활용하지 않으며 조사가 붙은 것이므로 불변어이다.

동사·형용사·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한다. 체언 뒤에 조사 한 단어가 붙은 것과 활용을 구별한다.

과정 한 줄 조사 결합과 활용 구별하기.

003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명사·대명사·수사를 체언으로 묶는다.
②	X	체언은 세 품사를 묶는 상위 갈래이다.
③	X	용언은 동사·형용사이며 부사는 수식언이다.
④	X	조사는 관계언, 감탄사는 독립언이다.
⑤	X	관형사는 수식언이고 형용사는 용언이다.

과정 한 줄 아홉 품사와 상위 갈래 구별하기.

004 예시 답안

- ㉠ 의미
- ㉡ 기능
- ㉢ 형태

동작이라는 뜻의 성질, 꾸미는 구실, 활용 여부를 각각 살폈다.

과정 한 줄 관찰 내용에서 분류 기준 찾기.

005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대명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②	O	관형사는 불변어이다.
③	O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고·이니' 등으로 활용한다.
④	O	부사에 보조사가 붙은 것이다.
⑤	X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은'과 '는' 중 하나를 골라 쓰는 것이며 활용이 아니다.

과정 한 줄 받침에 따라 '은/는'을 고르는 것을 활용으로 오해하지 않기.

A2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006 예시 답안

- ㉠ 고유 명사·자립 명사
- ㉡ 의존 명사
- ㉢ 보통 명사

'서울'은 특정 도시의 이름이면서 앞말에 기대지 않는다. '것'은 관형어를 필요로 하며 '기쁨'은 추상적인 마음의 이름이다.

과정 한 줄 명사의 두 분류 기준 따로 적용하기.

007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의존성만으로 조사가 되지 않는다. 이 '수'는 의존 명사이다.
②	X	'할 수'에서 '수'는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③	X	'할'의 어미는 '-ㄹ'이며 '수'는 별개의 단어이다.

선지	판정	해설
④	O	앞의 관형어에 기대는 명사이며 독립된 단어로 띄어 쓴다.
⑤	X	명사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도 나타낸다.

과정 한 줄 의존 명사의 의존성과 단어 지위 구별하기.

008 예시 답안

- ‘강’: 보통 명사·자립 명사
- ‘한강’: 고유 명사·자립 명사

‘강’은 같은 종류를 두루, ‘한강’은 특정 강을 가리킨다. 두 말 모두 자립 명사이다.

과정 한 줄 한 기준이 달라도 다른 기준은 같을 수 있음.

009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특정 도시 하나에 붙인 이름이 아니다.
②	O	범위와 자립성은 다른 기준이다.
③	O	앞의 관형어에 기대어 쓰인다.
④	O	의존 명사 뒤에도 조사가 붙는다.
⑤	X	감정·생각처럼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도 명사이다.

과정 한 줄 추상적인 이름도 명사임을 이해하기.

010 예시 답안

- ‘내가 읽을 것이 남았다.’
- ‘것’: 명사·의존 명사
- ‘이’: 조사

의존 명사 ‘것’은 앞말과 띄고, 조사 ‘이’는 앞의 ‘것’에 붙인다.

과정 한 줄 의존 명사와 조사 경계 확인하기.

A3 대상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011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두 번째 발화의 말하는 사람은 동생이다.
②	X	첫 번째 발화의 말하는 사람은 언니이다.
③	X	대명사의 지시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④	O	'나'의 대상은 각 발화의 말하는 사람이다.
⑤	X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과정 한 줄 대명사의 지시 대상을 발화 상황에서 찾기.

012 예시 답안

- ㉠ 미지칭: 특정인이 있으나 누구인지 모름
- ㉡ 부정칭: 특정인을 정하지 않음

물음표 유무보다 가리키는 대상을 특정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과정 한 줄 미지칭과 부정칭의 문맥 구별하기.

013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자기'의 대상이 같은 문장의 '형'이다.
②	X	이 문장에서는 '형'을 가리킨다.
③	X	'자기'가 가리키는 '형'이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④	X	'자기'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⑤	X	'자기'는 종이배를 접은 행위의 주체를 가리킨다.

과정 한 줄 재귀칭의 앞선 지시 대상 찾기.

014 예시 답안

- ㉠ '너'·인칭 대명사
- ㉡ '이것'·지시 대명사
- ㉢ '여기'·지시 대명사

‘어느’는 뒤의 ‘쪽’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이것’은 사물, ‘여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과정 한 줄 사람·사물·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구별하기.

015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나’가 가리키는 대상은 발화자이다.
②	O	재귀칭의 지시 관계를 살피는 방법이다.
③	O	같은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
④	O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별하는 핵심이다.
⑤	X	특정인을 정하지 않는 부정칭의 쓰임도 있다.

과정 한 줄 모양만으로 대명사의 쓰임을 고정하지 않기.

A4 수량을 나타내는 말의 두 자리

016 예시 답안

- ㉠ 수사·해당 없음
- ㉡ 관형사·‘자루’
- ㉢ 관형사·‘사람’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이며 ‘두’와 ‘세’는 각각 뒤의 체언을 꾸민다.

과정 한 줄 수사와 수 관형사의 기능 비교하기.

017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뜻이 비슷해도 ‘세’는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②	X	두 품사를 거꾸로 연결했다.
③	O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 ‘세’는 ‘학생’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④	X	‘세’는 체언 ‘학생’을 꾸미는 수 관형사이다.
⑤	X	조사 결합만으로 명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셋’은 수사이다.

과정 한 줄 같은 수량을 나타내도 품사는 다를 수 있음.

018 예시 답안

- ㉠ '두'·관형사
- ㉡ '둘'·수사

'두'는 '권'을 꾸민다. '둘'은 수량을 나타내며 뒤에 보조사 '뿐'이 붙는다.

과정 한 줄 결합하는 말과 기능으로 수량 표현 고르기.

019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의 '두'는 관형사이며 ㉢의 '셋'도 수사이다.
②	X	'두'와 '세'는 모두 수 관형사이다.
③	O	'둘'과 '셋'은 수사이고 '두'와 '세'는 수 관형사이다.
④	X	㉣의 '세'는 관형사이며 ㉠의 '둘'도 수사이다.
⑤	X	수를 나타낸다는 공통점만으로 품사가 모두 같아지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수량 표현을 문장 안에서 분류하기.

020 예시 답안

- '둘'은 수사이고 '두'는 관형사이다.
- ㉠: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다.
- ㉡: '두'는 뒤의 체언 '조각'을 꾸민다.

의미의 공통점에 기능상의 차이를 더하여 판단한다.

과정 한 줄 품사 판정에 의미와 기능 함께 쓰기.

B1 조사가 더하는 관계와 뜻

021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문장 성분과 조사의 갈래는 구별해야 한다. '도'는 보조사이다.
②	X	'사과'와 '배'를 같은 자격으로 잇는 접속 조사이다.
③	O	'도'는 포함의 뜻을 더한다.
④	X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선지	판정	해설
⑤	X	각각 보조사·접속 조사·격 조사로 구별된다.

과정 한 줄 조사의 갈래와 문장 성분 구별하기.

022 예시 답안

- ㉠ 보조사·포함(역시)
- ㉡ 보조사·한정(오직)
- ㉢ 접속 조사·'물'과 '빵'을 같은 자격으로 이음

㉠과 ㉡은 보조사의 뜻이 다르며 ㉢은 두 체언을 연결한다. 포함·한정과 같은 뜻을 드러낸 표현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보조사의 뜻과 접속 조사의 기능 비교하기.

023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너'는 대명사이다.
②	O	'둘'은 수사이다.
③	O	'빨리'는 부사이며 '도'는 보조사이다.
④	O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이다.
⑤	X	대명사·수사 뒤에도 붙고, 보조사는 부사나 어미 뒤에도 붙는다.

과정 한 줄 조사 결합만으로 앞말을 명사로 단정하지 않기.

024 예시 답안

- ㉠ '도'·포함(다른 사람에 더하여 나 역시)
- ㉡ '만'·한정(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오직 나)

㉠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남은 상황이므로 포함의 뜻을 더하는 '도'를 넣는다. ㉡은 나 혼자 남은 상황이므로 한정의 뜻을 더하는 '만'을 넣는다. '포함·한정'이라는 용어 대신 같은 뜻을 풀어 쓴 답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상황에 맞는 보조사와 의미 고르기.

025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과'는 접속 조사,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O	'연필'과 '지우개'가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고 전체가 목적어가 된다.

선지	판정	해설
③	X	여기서는 '연필'과 '지우개'를 잇는다.
④	X	격 조사는 앞말의 품사를 수사로 바꾸지 않는다.
⑤	X	'연필'과 조사 '과'는 별개의 단어이다.

과정 한 줄 접속 조사와 격 조사가 함께 쓰이는 구조 이해하기.

B2 같은 조사도 문장 속에서 확인하기

026 예시 답안

- ㉠ 주격 조사
- ㉡ 보격 조사
- ㉢ 목적격 조사

㉠의 '동생'은 주어, ㉡의 '반장'은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 ㉢의 '책'은 목적어이다.

과정 한 줄 '이'의 주격·보격 쓰임 구별하기.

027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두 문장의 기능을 거꾸로 연결했다.
②	O	㉠은 두 체언을 잇고 ㉡은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
③	X	㉡의 '과'는 '사진'을 비슷함의 비교 대상으로 나타낸다.
④	X	단순한 특별한 뜻의 첨가가 아니라 접속 또는 격 관계를 나타낸다.
⑤	X	㉠의 목적격 조사는 '를'이다. ㉡에는 '되다·아니다'의 보어가 없다.

과정 한 줄 '와·과'의 접속과 부사격 구별하기.

028 예시 답안

- ㉠ 관형격
- ㉡ 부사격
- ㉢ 호격
- ㉣ 서술격

'의'는 뒤의 체언을 꾸미는 관계, '에'는 이동의 도착점, '야'는 부름, '이다'는 서술의 관계를 나타낸다.

과정 한 줄 격 조사의 여러 관계 판별하기.

029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은’의 갈래는 보조사이며 ‘돌이’는 보어이다.
②	X	서술격 조사 ‘이다’와 보격 조사 ‘이’를 구별해야 한다.
③	X	‘은’은 체언 ‘이것’ 뒤에 붙은 보조사이며 ‘이’는 보격 조사이다.
④	O	‘은’은 화제 등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는 ‘아니다’ 앞 보어에 붙은 보격 조사이다.
⑤	X	서로 다른 뜻과 관계를 나타낸다.

과정 한 줄 보조사·보격 조사·서술격 조사 구별하기.

030 예시 답안

- 첫째 ‘가’는 주어를, 둘째 ‘가’는 보어를 나타내므로 ‘가’가 두 번 나온다고 주어가 둘인 것은 아니다.
- ‘내가’의 ‘가’: 주격
- ‘의사가’의 ‘가’: 보격

같은 형태의 조사도 서술어와 맺는 관계가 다르다.

과정 한 줄 조사 형태와 문장 관계를 함께 판단하기.

B3 동작·작용과 성질·상태

031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X	기본형의 ‘-다’만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없다.
②	X	글자 수는 동사 판정 근거가 아니다.
③	X	동사 ‘달리다’의 관형사형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④	X	‘조용한’은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⑤	O	동작과 상태라는 뜻, 현재형과 관형사형의 차이가 서로 뒷받침한다.

과정 한 줄 뜻과 활용 증거를 함께 사용하기.

032 예시 답안

- ‘웃다’: 동사·‘웃는’
- ‘높다’: 형용사·‘높은’
- ‘없다’: 형용사·‘없는’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없는’으로 활용한다. 관형사형 모양 하나를 모든 용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없다’의 활용을 동사 판정 공식으로 오해하지 않기.

033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X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도 ‘책’은 읽는 대상이며 ‘읽다’는 타동사이다.
②	O	‘새’는 주어이며 ‘날다’는 이 문맥에서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O	던지는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④	O	자동사·타동사의 핵심 구별 기준이다.
⑤	O	눈에 보이는 ‘을/를’ 유무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과정 한 줄 목적어의 필요성과 조사의 표면 형태 구별하기.

034 예시 답안

- ㉠ ‘날다’·자동사
- ㉡ ‘열다’·타동사
- ㉢ ‘맑다’·성상 형용사
- ㉣ ‘그러하다’·지시 형용사

㉠과 ㉡은 목적어 필요 여부로, ㉢과 ㉣은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지 가리키는지로 나눈다.

과정 한 줄 동사와 형용사의 세부 분류 기준 적용하기.

035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는’이 붙어 ‘없는’이 된다. ‘-는’만으로 동사를 판정할 수 없다.
②	X	‘없다’는 활용하는 형용사이다.
③	X	형용사 어간 ‘없-’과 어미 ‘-는’의 결합이다.
④	X	관형사형 활용과 관형사라는 품사는 다르다.
⑤	X	하나의 표면 형식으로 모든 용언을 단정하면 안 된다.

과정 한 줄 반례로 단정적인 판별 기준 수정하기.

B4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역할

036 예시 답안

- ㉠ '보다'·동사·보조 용언
- ㉡ '보다'·동사·본용언
- ㉢ '싶다'·형용사·보조 용언

㉠의 '보다'는 시도의 뜻을 더한다. ㉡의 '보다'는 보는 동작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싶다'는 바람의 뜻을 더하는 보조 형용사이다.

과정 한 줄 품사와 본용언·보조 용언 역할을 따로 기록하기.

037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용언 수만으로 역할을 정할 수 없다.
②	X	'나가다'는 별도의 동작을 나타내는 본용언이다.
③	O	㉠은 열기와 나가기라는 두 동작, ㉡은 신기를 시험 삼아 한 일이다.
④	X	'신어 보다'에서 '보다'는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⑤	X	'열다'와 '나가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과정 한 줄 두 동작의 연결과 보조 의미의 결합 구별하기.

038 예시 답안

- ㉠ 본용언·눈으로 살핌
- ㉡ 보조 용언·시험 삼아 함

㉠에서는 보는 동작이 중심이다. ㉡에서는 푸는 동작에 시도의 뜻을 더한다.

과정 한 줄 같은 용언의 문맥별 역할 비교하기.

039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읽는 일을 시험 삼아 한다는 뜻을 더한다.
②	O	쉬기를 바라는 뜻을 더한다.
③	O	동사·형용사라는 품사 구별과 기준이 다르다.
④	O	시도·바람 등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선지	판정	해설
⑤	X	‘싶다’처럼 보조 형용사도 있다.

과정 한 줄 보조 용언을 별도의 품사로 오해하지 않기.

040 예시 답안

- ㉠은 제주도에 가는 일을 말하고, ㉡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 ‘싶다’
- 형용사
- 보조 용언

‘가고 싶다’는 실제로 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단정하지 않고 바람을 나타낸다. 바람·희망 등의 표현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보조 용언이 더하는 뜻 설명하기.

C1 어간과 어미가 만드는 활용

041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어간과 어미를 거꾸로 연결했다.
②	X	‘-으시-’ 뒤에 ‘-었-’과 ‘-다’가 이어진다.
③	X	과거 등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④	O	중심 뜻을 나타내는 어간 뒤, 어말 어미 ‘-다’ 앞에 선어말 어미가 놓인다.
⑤	X	어간과 어미는 한 활용형을 이루는 형태소이다.

과정 한 줄 어간·선어말 어미·어말 어미 구별하기.

042 예시 답안

- ㉠ 종결 어미
- ㉡ 연결 어미
- ㉢ 명사형 전성 어미
- ㉣ 관형사형 전성 어미

끝맺음, 이어 줌, 명사와 같은 구실, 뒤의 체언을 꾸미는 구실을 구별한다.

과정 한 줄 어말 어미의 구실 구별하기.

043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어미 '-기'와 파생 접미사 '-기'를 구별해야 한다. 여기서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②	O	'읽-'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③	X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며 이 '읽기'는 명사형이다.
④	X	주격 조사는 뒤의 '가'이며 '-기'는 전성 어미이다.
⑤	X	'읽-'은 중심 뜻을 나타내는 어간이다.

과정 한 줄 명사형 활용과 품사 변화 구별하기.

044 예시 답안

- ㉠ '먹-' / '-었-' / '-다'
- ㉡ '먹-' / 없음 / '-고'
- ㉢ '먹-' / '-겠-' / '-다'

선어말 어미는 반드시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다. '먹고'에는 어간과 연결 어미만 있다.

과정 한 줄 선어말 어미의 유무를 실제 형태에서 확인하기.

045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O	뒤의 말과 이어 준다.
②	X	형용사 '밝다'의 관형사형이며 품사는 형용사이다.
③	O	학교 문법의 전성 어미 분류에 따른 분석이다.
④	O	어말 어미 '-다' 앞에 놓인다.
⑤	O	품사는 단어의 분류이며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과정 한 줄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 구별하기.

C2 모습이 달라져도 규칙 활용

046 예시 답안

- '쓰- + -어': '써'·규칙
- '살- + -는': '사는'·규칙
- '먹- + -고': '먹고'·규칙

— 탈락과 ㄹ 탈락으로 모습이 달라져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하므로 규칙 활용이다.

과정 한 줄 형태 변화가 있는 규칙 활용 이해하기.

047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듣다→들어’는 ㄷ 불규칙 활용이다.
②	O	— 탈락과 ㄹ 탈락은 규칙 활용으로 다룬다.
③	X	‘춥다→추워’는 ㅂ 불규칙 활용이다.
④	X	각각 ㅅ 불규칙, ㄷ 불규칙 활용이다.
⑤	X	각각 ㅎ 불규칙, ㅂ 불규칙 활용이다.

과정 한 줄 규칙적인 탈락과 불규칙 활용 구별하기.

048 예시 답안

- ‘미는’·O
- ‘밀고’·X
- ‘미니’·O
- 언제나는 아니다. ‘-고’ 앞에서는 ‘ㄹ’이 남는다.

같은 어간이라도 결합하는 어미가 다르면 탈락 여부가 다르다.

과정 한 줄 규칙의 적용 환경 확인하기.

049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같은 모음 ‘ㅏ’ 하나가 탈락했다.
②	X	탈락이라는 사실만으로 불규칙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③	X	‘가다’는 동사이며 ‘가’는 그 활용형이다.
④	O	같은 모음 ‘ㅏ’ 하나가 탈락하는 동음 탈락이며,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규칙 활용이다.
⑤	X	‘가- + -아 → 가’처럼 같은 모음 하나가 탈락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과정 한 줄 표면 형태와 어간·어미 결합 과정 구별하기.

050 예시 답안

- 어간의 소리가 없어져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면 규칙 활용이다.
- ‘사는’: ‘ㄹ’ 탈락이 일어난 규칙 활용
- ‘써’: ‘ㅡ’ 탈락이 일어난 규칙 활용

자료의 두 예가 모두 단정적인 판단의 반례가 된다.

과정 한 줄 반례를 이용해 규칙 활용의 기준 설명하기.

C3 특정 어간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051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X	‘문을 닫다’의 ‘닫다’는 ‘닫아’로 규칙 활용한다.
②	O	어간 끝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뀐다.
③	X	‘옷을 벗다’의 ‘벗다’는 ‘벗어’로 규칙 활용한다.
④	X	‘공을 잡다’의 ‘잡다’는 ‘잡아’로 규칙 활용한다.
⑤	X	‘줘’는 모음 축약으로 설명되는 규칙 활용이다.

과정 한 줄 어간 끝소리가 같아도 활용은 다를 수 있음.

052 예시 답안

- ㉠ ‘물어’·ㄷ 불규칙
- ㉡ ‘묻어’·규칙
- ㉢ ‘추워’·ㅂ 불규칙
- ㉣ ‘잡아’·규칙

같은 ‘묻다’라도 뜻에 따라 활용이 다르다. ‘ㅂ’ 받침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춥다’와 ‘잡다’를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단어의 뜻과 어미 조건을 함께 확인하기.

053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듣- + -어’의 바른 활용형은 ‘들어’이다.
②	X	‘듣고’처럼 어간이 유지되는 형태도 있다.

선지	판정	해설
③	O	불규칙 변화는 특정 환경에서 나타난다.
④	X	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이다.
⑤	X	이 자료에서는 모두 '소리를 듣다'의 '듣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과정 한 줄 불규칙 용언과 개별 활용형의 변화 구별하기.

054 예시 답안

- '흘러'·르 불규칙
- '치러'·규칙
- '흘러'는 르 불규칙이고 '치러'는 'ㅡ' 탈락이다.

기본형이 '르다'로 끝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르 불규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과정 한 줄 르 불규칙과 ㅡ 탈락 비교하기.

055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O	'돕다'는 ㅂ 불규칙 용언이며 '도와'로 활용한다.
②	O	'춥다'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③	O	'물을 푸다'의 '푸다'는 우 불규칙 용언이다.
④	X	'집을 짓다'의 '짓다'는 '지어'로 활용하며 ㅅ 불규칙이다.
⑤	O	'흐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과정 한 줄 불규칙 활용형을 정확히 만들기.

C4 어미도 달라지는 불규칙

056 예시 답안

- '하여'('해')·여 불규칙
- '이르러'·러 불규칙
- '파래'·ㅎ 불규칙

'하여'의 준말 '해'도 인정한다. '이르다'는 '도달하다'의 뜻으로 한정했다.

과정 한 줄 어미 또는 어간·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구별하기.

057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도달하다’라는 뜻일 때의 활용은 ‘이르러’이다. ‘일러’는 다른 뜻의 ‘이르다’에서 나타난다.
②	X	해당 단어의 활용을 확인해야 하며 바른 결과는 ‘이르러’이다.
③	O	‘도달하다’라는 뜻의 ‘이르다’는 어간 ‘이르-’가 유지되고 어미가 ‘-러’로 바뀐다.
④	X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결합했다.
⑤	X	‘흘러’는 르 불규칙, ‘이르러’는 러 불규칙이다.

과정 한 줄 ‘이르다’의 뜻을 고정하여 러 불규칙 판별하기.

058 예시 답안

- ‘파래’·ㅎ 불규칙
- ‘좋아’·규칙
- 정할 수 없다. ‘좋다’는 ‘ㅎ’이 유지되어 ‘좋아’로 활용한다.

같은 받침을 가진 용언이라도 어간·어미의 실제 변화가 다르다.

과정 한 줄 ㅎ 불규칙에 대한 과잉 일반화 막기.

059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각각 ‘르’의 특별한 변화, 어미의 변화, ‘—’ 탈락이다.
②	X	㉠과 ㉡의 갈래를 거꾸로 연결했다.
③	X	㉡은 러 불규칙이며 ㉢은 규칙 활용이다.
④	X	㉠은 르 불규칙, ㉢은 규칙 활용이다.
⑤	X	결과가 ‘러’로 끝난다고 모두 러 불규칙이 아니다.

과정 한 줄 ‘흘러·이르러·치러’의 출발점과 결과 비교하기.

060 예시 답안

- ㉠ 어간만·ㄷ 불규칙
- ㉡ 어미만·여 불규칙
- ㉢ 어간과 어미·ㅎ 불규칙

㉠에서는 ‘ㄷ’이 ‘ㄹ’로, ㉡에서는 ‘-아’가 ‘-여’로 바뀐다. ㉢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달라지는 유형으로 분류한다.

과정 한 줄 불규칙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 구별하기.

D1 관형사와 관형사형은 다르다

061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의 관형사형이다.
②	X	‘새 신발’의 ‘새’는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③	X	‘예쁜’은 ‘예쁘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④	O	같은 문장 역할을 해도 품사는 다르다.
⑤	X	서로 다른 품사도 같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과정 한 줄 품사와 관형어 역할을 별개의 기준으로 보기.

062 예시 답안

- ㉠ ‘이’·관형사·관형어
- ㉡ ‘작다’·형용사·관형어
- ㉢ ‘웃다’·동사·관형어

‘이’는 불변어이며 ‘작은’과 ‘웃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세 말 모두 뒤의 체언을 꾸민다.

과정 한 줄 기본형 복원으로 관형사와 용언 구별하기.

063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X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이다.
②	X	‘읽는’은 동사 ‘읽다’의 활용형이다.
③	O	각각 성상·지시·수 관형사이다.
④	X	‘둘’은 수사이다.
⑤	X	‘매우’는 부사이다.

과정 한 줄 수식 기능이 비슷한 말의 품사 구별하기.

064 예시 답안

- ‘새’는 관형사이고 ‘높은’은 형용사 ‘높다’의 관형사형이다.
- ‘새’는 활용하지 않지만 ‘높다’는 ‘높고·높으니·높은’으로 활용한다.

뒤의 명사를 꾸미는 공통 기능에 활용 여부라는 형태 기준을 더한다.

과정 한 줄 활용 여부를 품사 판정의 근거로 쓰기.

065 정답 ②

선지	판정	해설
①	O	상자의 수를 한정하는 수 관형사이다.
②	X	‘두’는 수 관형사이고 ‘작은’만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③	O	형용사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었다.
④	O	같은 체언의 수량과 성질을 각각 나타낸다.
⑤	O	관형어 역할과 품사는 구별된다.

과정 한 줄 같은 명사를 꾸미는 서로 다른 품사 확인하기.

D2 꾸미는 범위와 독립적인 말

066 예시 답안

- ㉠ ‘높다’
- ㉡ ‘빨리’
- ㉢ ‘달린다’

㉠에서는 형용사, ㉡에서는 부사, ㉢에서는 동사를 꾸민다. ‘달린다’의 기본형 ‘달리다’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부사의 직접 수식 대상 찾기.

067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그러나’는 접속 기능의 문장 부사, ‘네’는 대답의 감탄사이다.
②	X	위치가 아니라 구실과 뜻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X	접속 조사는 체언 등을 잇는 조사이며 ‘그러나’는 부사이다.
④	X	‘네 권’의 ‘네’와 달리 이 ‘네’는 대답이다.

선지	판정	해설
⑤	X	이 문맥의 '그러나'는 불변어인 부사이다.

과정 한 줄 접속 부사와 접속 조사·감탄사 구별하기.

068 예시 답안

- ㉠ 감탄사·느낌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 ㉡ 감탄사·대답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 ㉢ 관형사·뒤의 체언 '권'을 수량으로 꾸밈

같은 '네'라도 대답인지 수량으로 체언을 꾸미는지에 따라 품사가 다르다.

과정 한 줄 감탄사의 뜻과 문법적 독립성 확인하기.

069 정답 ③

선지	판정	해설
①	O	'아주'는 '빨리'를 꾸미는 부사이다.
②	O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이다.
③	X	문장부호는 품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명사 뒤에도 느낌표가 올 수 있다.
④	O	감탄사는 대답도 나타낸다.
⑤	O	접속 기능을 하는 문장 부사이다.

과정 한 줄 문장부호만으로 감탄사를 판정하지 않기.

070 예시 답안

- ㉠ '오늘'
- ㉡ '출발했다'('출발하다')
- 부사도 체언을 꾸미는 쓰임이 있으므로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형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어진 자료에서 ㉠은 '오늘', ㉡은 '출발했다'와 관련된다. 이 문항은 '바로'의 사전 분류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반례로 판단 기준을 수정하는 문제이다.

과정 한 줄 수식 대상 하나만으로 품사를 단정하지 않기.

D3 같은 모양, 다른 문맥

071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은 그릇된 일의 이름, ㉡은 적는 방식과 관련된 수식어이다.
②	X	같은 형태라도 문맥에 따라 품사가 다를 수 있다.
③	X	두 쓰임을 거꾸로 판정했다.
④	X	㉠은 명사이며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⑤	X	'잘못'은 별개의 부사이며 '적었다'는 동사의 활용형이다.

과정 한 줄 같은 형태의 명사와 부사를 문맥으로 구별하기.

072 예시 답안

- ㉠ '계획대로'·조사
- ㉡ '들은 대로'·명사(의존 명사)

㉠의 '대로'는 체언 '계획' 뒤에 붙는 조사이다. ㉡의 '대로'는 관형어 '들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이다.

과정 한 줄 '대로' 앞말의 종류와 띄어쓰기 연결하기.

073 정답 ④

선지	판정	해설
①	X	㉠의 '뿐'은 조사이다.
②	X	㉡의 '뿐'은 의존 명사이다.
③	X	㉠의 '뿐'은 조사, ㉡의 '뿐'은 명사이다.
④	O	체언 뒤의 조사와 관형어 뒤의 의존 명사를 구별한다.
⑤	X	의존 명사도 독립된 단어로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뿐'의 조사와 의존 명사 쓰임 구별하기.

074 예시 답안

- ㉠ 관형사·뒤의 명사 '가방'을 가리켜 꾸밈
- ㉡ 조사·앞의 명사 '가방'에 붙어 주격을 나타냄

같은 글자라도 앞뒤 관계와 구실을 확인하면 관형사와 조사를 구별할 수 있다.

과정 한 줄 '이'의 관형사와 조사 쓰임 구별하기.

075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O	명사와 부사의 쓰임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②	O	조사와 의존 명사 구별에 도움이 된다.
③	O	관형사와 조사의 구실을 구별할 수 있다.
④	O	품사는 문맥의 증거를 바탕으로 판정해야 한다.
⑤	X	해당 문맥의 뜻·결합·기능에 맞는 항목을 골라야 한다.

과정 한 줄 문맥 증거로 사전의 해당 쓰임 찾기.

D4 분류 기록을 연결하는 종합

076 예시 답안

- ㉠ '새'·관형사·X
- ㉡ '읽다'·동사·O
- ㉢ '매우'·부사·X
- ㉣ '이다'·조사(서술격 조사)·O

서술격 조사 '이다'는 조사 가운데 활용한다. '읽는'의 기본형을 복원하여 동사로 판정한다.

과정 한 줄 기본형·품사·활용 여부의 일치 확인하기.

077 정답 ①

선지	판정	해설
①	O	'새'는 '방법'을 꾸미며 활용하지 않는다. '보다'는 풀기를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낸다.
②	X	'나'라는 대명사 뒤에 붙은 보조사이다.
③	X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X	'문제'는 명사이며 목적격 조사는 '를'이다.
⑤	X	둘 다 동사의 활용형이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과정 한 줄 한 문장의 체언·조사·수식언·용언 함께 분석하기.

078 예시 답안

- ㉠ ‘예쁜’: 형용사 ‘예쁘다’의 관형사형·활용한 말
- ㉡ ‘학교’: 명사·불변어·조사가 붙었을 뿐 활용하지 않음
- ㉢ ‘싶다’: 보조 형용사·가기를 바라는 뜻을 더하는 용언

관형어와 관형사, 조사 결합과 활용, 보조사와 보조 용언을 각각 구별한다.

과정 한 줄 서로 다른 분류 이름의 혼동 고치기.

079 정답 ⑤

선지	판정	해설
①	X	㉠은 의존 명사, ㉡은 조사이다.
②	X	‘듣다’의 관형사형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③	X	‘계획’은 명사이며 조사 ‘대로’가 붙었다.
④	X	이 문맥의 ‘보다’는 시험 삼아 적었다는 뜻을 더하는 보조 동사이다.
⑤	O	‘들은’ 뒤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며 ‘적어 보다’의 ‘보다’는 시도의 뜻을 더한다.

과정 한 줄 문맥에 따른 품사와 보조 용언 역할 연결하기.

080 예시 답안

- 1 ‘들은’: ‘듣다’·동사
- 2 ‘새’: ‘공책’을 꾸밈·관형사
- 3 ‘보았다’: ‘보다’·동사·보조 용언
- ‘들은’은 ‘내용’을 꾸미는 동사의 관형사형이고, ‘새’는 ‘공책’을 꾸미는 관형사이므로 품사가 다르다. ‘보았다’는 적는 일을 시험 삼아 했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의 활용형이다.

‘들은’은 ‘듣다’의 ㄷ 불규칙 활용이 나타난 관형사형이다. 두 수식어의 대상도 다르며 ‘보았다’에는 과거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포함된다. 마지막 답은 세 오류(품사 동일·수식 대상 동일·‘보다’를 조사로 판정)를 모두 바로잡으면 표현 차이를 인정한다.

과정 한 줄 기본형 복원·수식 대상·보조 역할을 함께 확인하기.

S7 개념·문항·그림 연결

묶음	개념ID	문항	그림
A1	문법04-01 · 문법04-02	001~005	G-01
A2	문법04-03	006~010	G-02
A3	문법04-04	011~015	G-03
A4	문법04-05 · 문법04-12	016~020	G-04
B1	문법04-06	021~025	G-05
B2	문법04-06	026~030	G-15
B3	문법04-07	031~035	G-06
B4	문법04-08	036~040	G-07
C1	문법04-09	041~045	G-08
C2	문법04-10	046~050	G-09
C3	문법04-11	051~055	G-10
C4	문법04-11	056~060	G-11
D1	문법04-12 · 문법04-13	061~065	G-12
D2	문법04-12	066~070	G-13
D3	문법04-14	071~075	G-14
D4	문법04-01 · 문법04-02 · 문법04-04 · 문법04-06 · 문법04-08 · 문법04-09 · 문법04-11 · 문법04-12 · 문법04-13 · 문법04-14	076~080	G-16